

2024년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 12.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www.djiw.or.kr

I 행사개요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10:00-12:00

장소 : 대전노동권익센터 교육실

좌 장	나규정 대전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장
발제자	홍춘기 대전노동권익센터장 ■ 주제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보고
당사자	김예린 파리바게뜨 대전분회장
토론자	김선재 유성구 네트워크 길잡이
	이은영 동구 네트워크 길잡이
	이희영 대덕구 네트워크 길잡이
	임정애 서구2 네트워크 길잡이
	장정미 서구1 네트워크 길잡이

II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0:00~10:10	10'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10~10:15	05'	인사말씀	센터장
10:15~10:20	05'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자
10:20~10:50	30'	실태조사 결과보고	발제자
10:50~11:30	40'	토론	토론자
11:30~11:40	10'	질의 및 응답	사회자
11:40~11:45	05'	토론 내용 정리	좌장
11:45~11:50	05'	폐회	사회자
11:50~11:55	05'	기념촬영	모두 함께

2024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구분	이름	소속/직위
연구책임자	홍춘기	대전노동권익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나규정	대전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장
공동연구원	이용주	대전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 법률담당

< 목 차 >

01

서론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3. 연구의 기대효과	5

02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관련 주요 쟁점	7
1. 주요 쟁점	9

03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11
1.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실태조사	13
1) 실태조사 개요	13

04

요약 및 결론	15
1. 실태조사 요약	17
1) 기본 사항	17
2) 노동안전	23
3) 휴게시설	54

2. 실태조사 결론 61

05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67

1. 대전광역시의 노동안전 보건과 지역안전을 포괄하는 이행 정책 필요 69

2.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70

3.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지원이 필요하다 71

〈설문지〉 73

〈모니터링단 사진〉 75

2024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 표 목 차 〉

〈표 1〉 직업의 연령대 19

〈표 2〉 직업별 직장규모 21

〈표 3〉 직업별 고용형태 22

〈표 4〉 직업별 직장내 안전담당자 유무 24

〈표 5〉 직장규모별 안전담당자 유무 25

〈표 6〉 고용형태별 안전담당자 유무 26

〈표 7〉 직업별 산업안전사고(질병) 발생유무 29

〈표 8〉 성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 30

〈표 9〉 연령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 30

〈표 10〉 고용규모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 31

〈표 11〉 고용형태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	31
〈표 12〉 안전사고 유무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안전사고(질병) 발생	32
〈표 13〉 직업별 걱정되는 안전문제	33
〈표 14〉 성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34
〈표 15〉 연령대별 직장내 걱정되는 안전문제	34
〈표 16〉 고용규모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35
〈표 17〉 고용형태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36
〈표 18〉 산재위험요인에 대한 직업별 분류	38
〈표 19〉 연령대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39
〈표 20〉 직장규모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40
〈표 21〉 고용형태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41
〈표 22〉 직업별 개선사항 응답 분류	43
〈표 23〉 직업별 대전시 정책 분류	45
〈표 24〉 성별 대전시 정책 분류	45
〈표 25〉 고용규모별 대전시 정책 분류	46
〈표 26〉 고용형태별 대전시 정책 분류	46
〈표 27〉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교육실시 척도	47
〈표 28〉 안전담당자유무에 따른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척도	49
〈표 29〉 직업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여부	50
〈표 30〉 직장규모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여부	50
〈표 31〉 고용규모별 안전교육에 대한 응답 분류	52
〈표 32〉 직업별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	53
〈표 33〉 직업별 휴게시설 응답 분류	55
〈표 34〉 고용규모별 휴게시설 응답 분류	56
〈표 35〉 연령대별 휴게시설 이용빈도	57
〈표 36〉 직업별 휴게시설 이용빈도	58
〈표 37〉 직업별 휴게시설 미이용에 대한 분류	60
〈표 30〉 직장규모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여부	50

< 그림 목 차 >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17
[그림 2] 응답자의 연령	18
[그림 3] 응답자의 직업적 분류	17
[그림 4] 응답자의 직장위치 및 거주지	20
[그림 5] 응답자의 직원 고용규모	21
[그림 6] 응답자의 고용형태	22
[그림 7] 응답자 직장의 안전보건 조직(담당자) 유무	23
[그림 8] 직장내 안전보건담당자 업무충실수행여부	27
[그림 9] 산업안전사고(질병) 발생여부 최근 1년	28
[그림 10] 업무관련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	32
[그림 11] 산재발송의 위험요인	37
[그림 12] 노동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42
[그림 13]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한 대전시 지원정책	44
[그림 14] 직장내 안전보건교육 충분히 실시 여부	48
[그림 15] 직장내 매뉴얼마련과 정기적 훈련실시 여부	49
[그림 16] 응답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51
[그림 17] 직장내 휴게시설 설치 유무	54
[그림 18] 직장내 휴게시설 이용빈도	56
[그림 19]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59
[그림 20] 기타 노동안전 관련 애로사항	61

2024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01

서론



1 서론

1. 연구 배경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도 시행 당시 50인 또는 5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게 되어 있어, 올해 1월 초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사업주들은 유예연장을 요구하며, 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에 관한 주장들을 펼쳤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연장되지 않았고, 지금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고 노동부는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 27건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은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874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80.9%에 달하는 707명이 사망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도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6~70%에 이르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리튬 배터리 폭발로 현장에 있던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 1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적절한 화재 예방 시스템이 없었던 현장

은 피해를 키웠다. 공장의 대부분 노동자가 비숙련 외국인 파견노동자였고, 화재 대응훈련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려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미흡한 산업안전보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전지역 산업안전보건 환경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2023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대전지역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2. 연구 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선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은 법의 시행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에 법 적용 확대를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함이다.

두 번째 목적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현장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리셀의 예처럼 현장의 산업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 시스템은 어떤가 확인하고,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또 대전시민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

안전보건과 지역안전을 포괄하는 대전광역시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기대효과

이번 연구는 모니터링 수준의 조사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와 비교되어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안전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의식, 노동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종별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과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에 대한 노동현장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인 대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현장의 상황에 기초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노동안전, 지역안전을 위한 역할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될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역할 향상과 지원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02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관련 주요 쟁점



2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관련 주요 쟁점

1. 주요 쟁점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얼마나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사업주의 의무로는 ①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②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신고준수 ⑤ 작업중단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중대재해 발생 시) ⑥ 작업환경 측정 ⑦ 근로자 보호구 착용 조치 ⑧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⑨ 산재예방 계획 수립 (산재예방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총괄) 등이 있다.

아리셀의 예처럼 안전보건 시스템이 없고, 위급 시 대응훈련이 안 되어 있는 현장은 산업재해로부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업주들이 얼마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이행되고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의 안전예산, 인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 7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7%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응답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1.3%였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이라며 81.3%의 사업주들이 재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하

였다. 이미 시행된 법을 안정화하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범메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 교육진행, 현장 컨설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대안 모색 등이 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업주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22년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3년까지 기소된 사건 중 선고가 된 사례는 12건으로 경영책임자 대부분은 1건의 실행선고 외에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법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2024년 8월 말까지 62건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469건에 대해는데 60여 건밖에 기소되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대책마련, 진지한 반성 등이 형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늦추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돼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제4조의 2항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담당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와 3항에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따른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제4조 3항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03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3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1.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 ◆ 사업기간 : 2024. 6. ~ 2024. 11.
- ◆ 사업명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산업안전) 모니터링
- ◆ 사업대상 :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 사무직, 의료직, 사회서비스직, 활동가, 연구/개발직, 프리랜서/알바, 현장/생산직, 돌봄노동직, 경비/관리직, 특수고용직, 상담직, 영업/서비스직 등

- ◆ 사업경과 일정
 - 기획 및 기초조사 : 6월~7월
 -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7월~8월
 - 모니터링 기간 : 9~10월
 - 조사 분석 : 10월~11월
 -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 : 12월 6일
 - 평가회의 : 12월



◆ 사업결과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산업안전) 모니터링 결과

2024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안전(산업안전) 모니터링	
직군(직종)	노동자
12개 직종	434명

04

요약 및 결론



4 요약 및 결론

1. 실태조사 요약

● 기본 사항

○ 모니터링 응답자 성별

이번 모니터링에 응답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72%, 남성이 28%였습니다.

조사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여성들이 많이 응답하기도 하였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 응답자들의 성별 차이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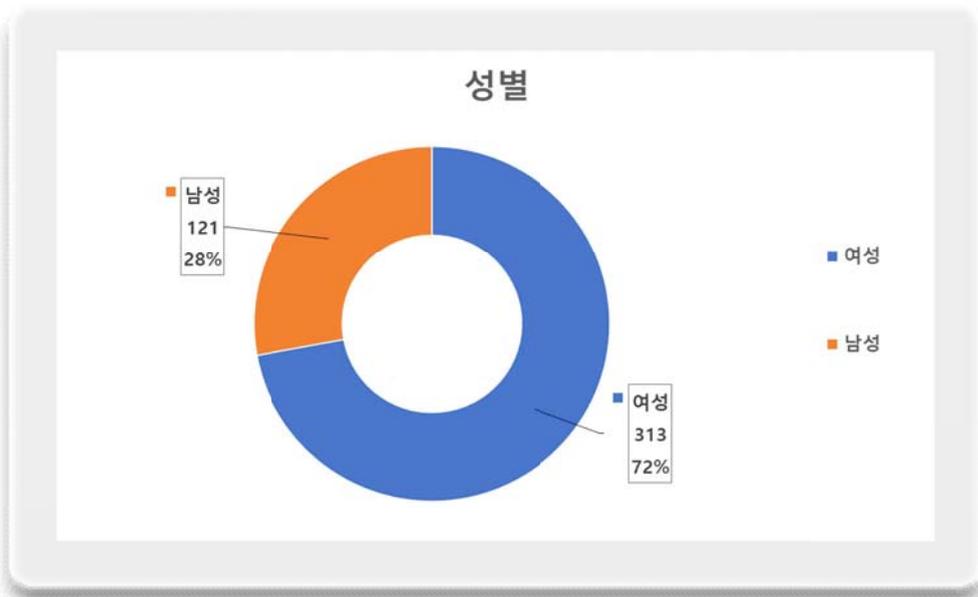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들의 연령을 보면, 20대 6%, 30대 12%, 40대 23%, 50대 37%, 60대 이상도 22% 응답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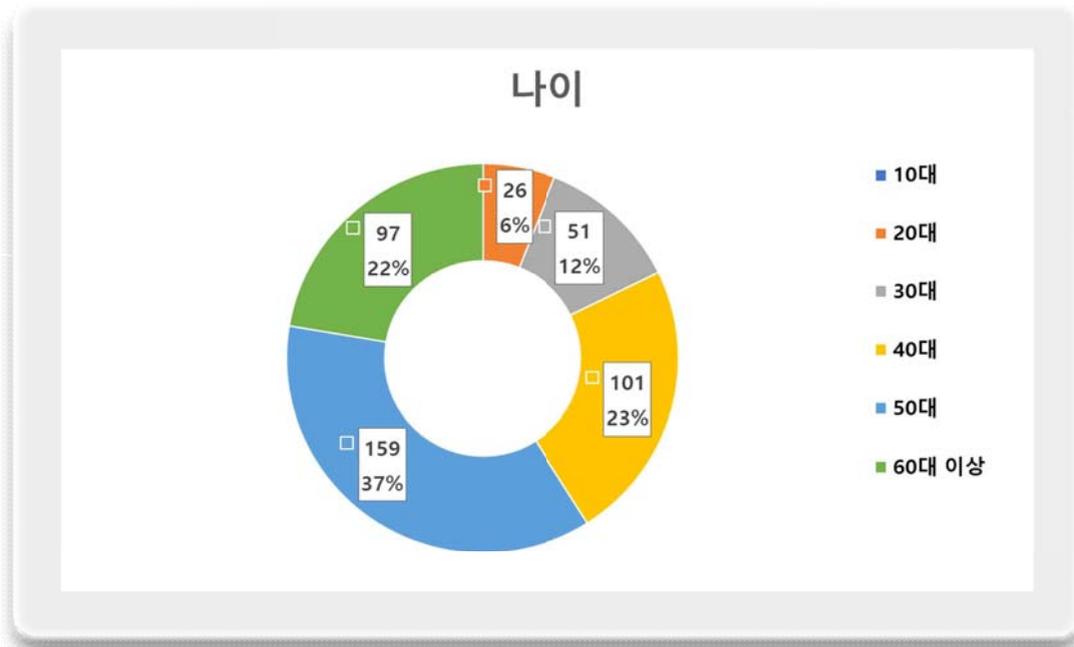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연령

○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들의 직업분류도 다양하게 나타남. 영업/서비스직이 15%로 가장 많았고, 돌봄직, 프리랜서/알바 등의 순으로 응답자들의 직업이 분류됨.

연령대별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20대는 프리랜서/알바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40대도 비교적 고르게 직업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50대는 돌봄노동직, 영업/서비스직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경비/관리직과 영업/서비스직이 많이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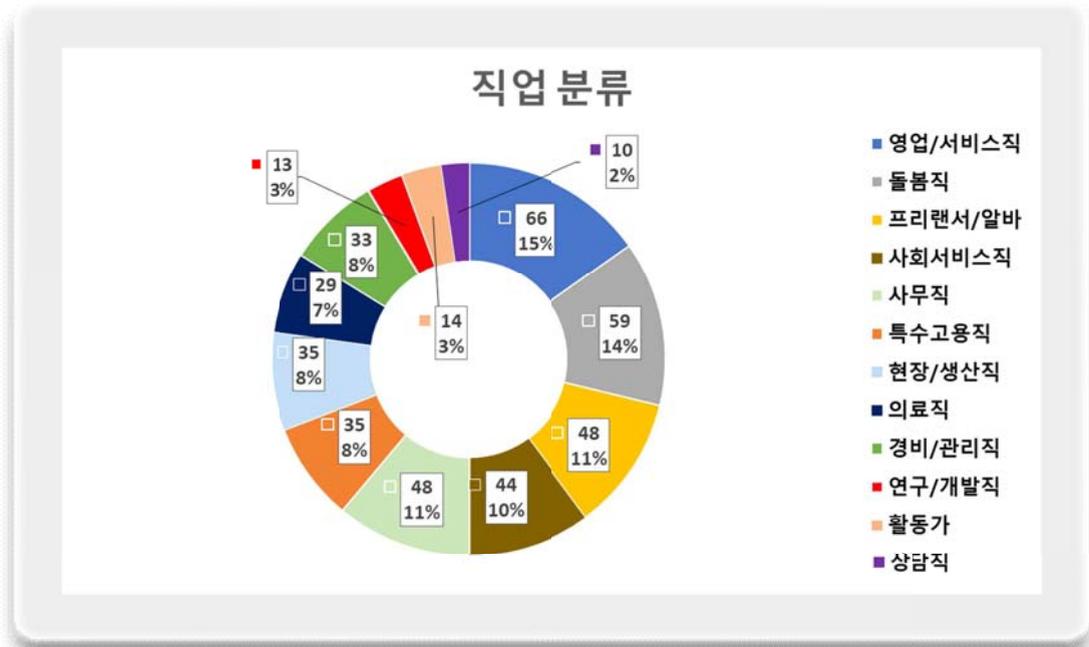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의 직업별 분류

직종/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총합계
경비/관리직		1	2	6	24	33
돌봄노동직	1	4	14	25	15	59
사회서비스직	3	5	10	16	10	44
상담직		2	5	2	1	10
연구개발직	3	5	1	3	1	13
영업/서비스직	4	3	10	25	24	66
의료직	2	9	6	11	1	29
사무직	5	7	14	17	5	48
특수고용직	1	8	13	12	1	35
프리랜서/알바	7	2	12	20	7	48
현장/생산직		3	9	18	5	35
활동가		2	5	4	3	14
계	26	51	101	159	97	434

표 1 직업별 연령대

○ 응답자 직장의 위치

응답자들의 직장은 대덕구가 가장 많았고, 서구, 동구/유성구, 중구 순으로 조사됨. 조사원들의 사는 곳에 따른 결과가 일부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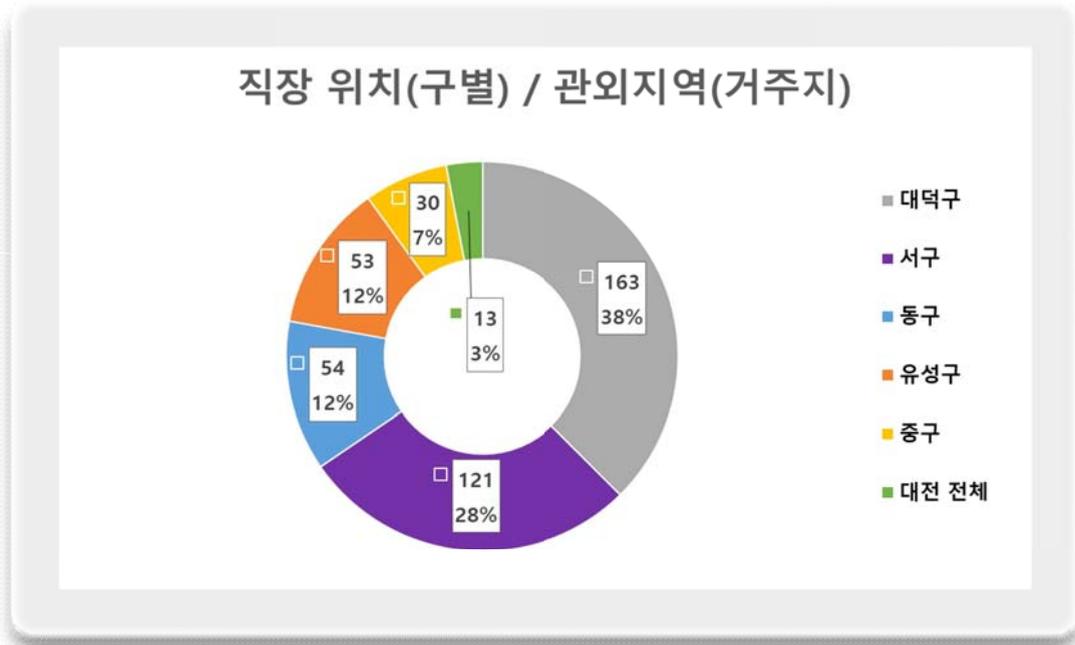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의 직장위치 및 거주지

○ 응답자들의 직장 규모

응답자들의 직장 규모는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이 42%, 5인 미만 사업장이 31% 등으로 나타남.

직업별 직장규모를 분류해 보면, 돌봄,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현장생산직은 5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이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영업/서비스직, 프리랜서/알바, 사무직 등이 많았으며,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돌봄노동, 사회서비스직, 의료직 등의 순으로 응답자들이 분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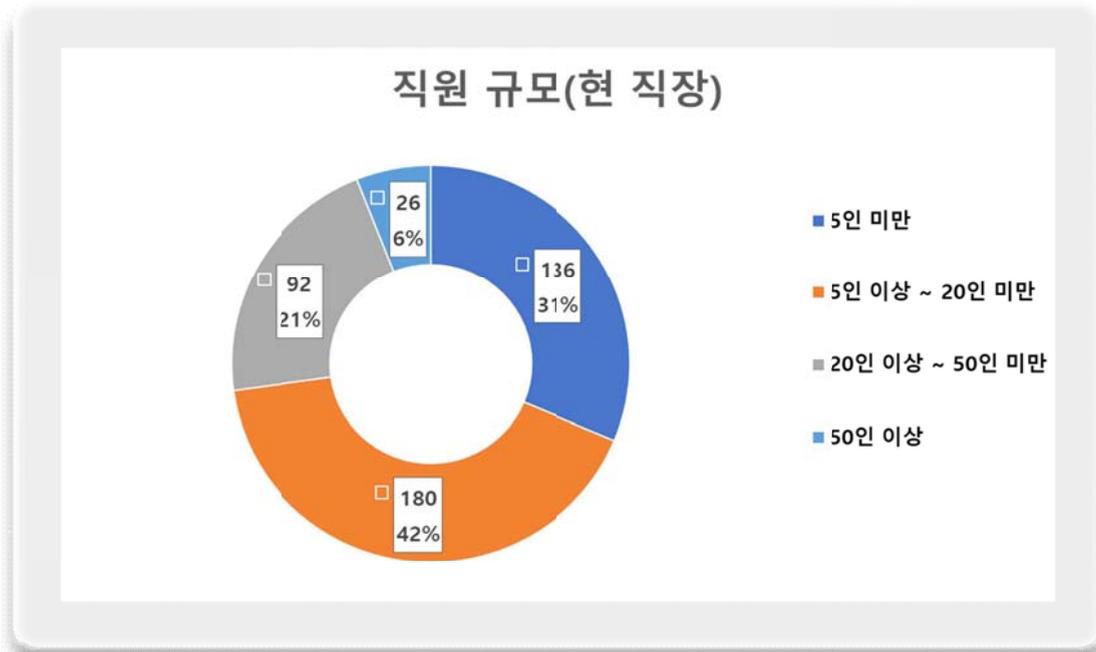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의 직원 고용규모

직종/규모	5인 미만	5인 이상 ~ 20인 미만	20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총합계
경비/관리직	11	18	4		33
돌봄노동직	11	27	16	5	59
사회서비스직	8	19	14	3	44
상담직	1	3	3	3	10
연구개발직	1	5	6	1	13
영업/서비스직	27	24	12	3	66
의료직	1	15	13		29
사무직	20	23	3	2	48
특수고용직	17	9	7	2	35
프리랜서/알바	24	13	5	6	48
현장/생산직	7	19	9		35
활동가	8	5		1	14
계	136	180	92	26	434

표 2 직업별 직장규모

○ 응답자의 고용형태

응답자분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41명, 시간제가 101명, 계약직 71명 등으로 분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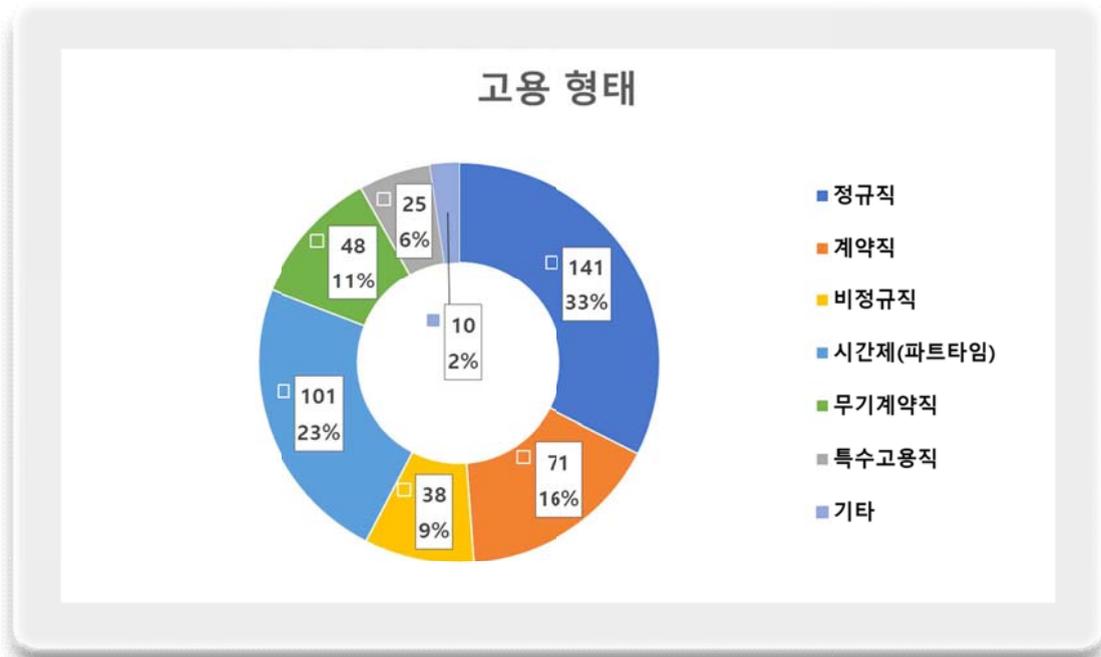


그림 6 응답자들의 고용형태

직업별 고용형태를 분류해 보면, 경비/관리직, 돌봄노동직, 프리랜서/알바는 계약직이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은 정규직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는 프리랜서/알바 응답자들이 많았음.

직종/고용형태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특수 고용직	기타	총합계
경비/관리직	3	4	9	15	1		1	33
돌봄노동직	9	9	9	21	10		1	59
사회서비스직	21	1	6	11	3	2		44
상당직	2	3	1	3		1		10
연구개발직	9	1	3					13
영업/서비스직	21	6	10	15	6	4	4	66
의료직	18	1	3	4	3			29
사무직	33	5	2	7	1			48
특수고용직	3	2	7	6	5	12		35
프리랜서/알바	4	2	8	12	16	3	3	48
현장/생산직	13	3	10	5	2	2		35
활동가	5	1	3	2	1	1	1	14
전체	141	38	71	101	48	25	10	434

표 3 직업별 고용형태

● 노동안전

○ 응답자들의 안전보건 담당자 유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조직 및 관리담당자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는 4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니오는 34%, 모른다는 의견도 18%나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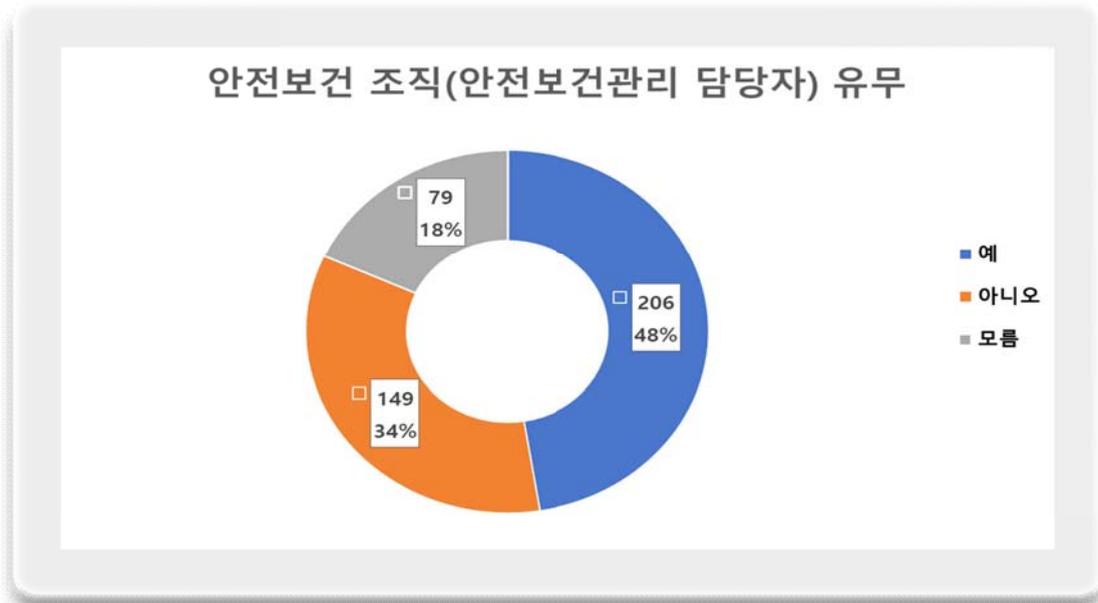


그림 7 응답자 직장의 안전보건 조직(담당자) 유무

직업별로 응답자들을 분류해 보면, 상담직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안전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4)

직업 * 안전담당자 유무 교차표

		안전담당자 유무			전체	
		예	아니오	모름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20	8	5	33
		직업 중 %	60.6%	24.2%	15.2%	7.6%
	돌봄노동직	빈도	29	15	15	59
		직업 중 %	49.2%	25.4%	25.4%	13.6%
	사회서비스직	빈도	25	14	5	44
		직업 중 %	56.8%	31.8%	11.4%	10.1%
	상담직	빈도	2	5	3	10
		직업 중 %	20.0%	50.0%	30.0%	2.3%
	연구/개발직	빈도	9	1	3	13
		직업 중 %	69.2%	7.7%	23.1%	3%
	영업/서비스직	빈도	29	28	9	66
		직업 중 %	43.9%	42.4%	13.6%	15.2%
	의료직	빈도	12	11	6	29
		직업 중 %	41.4%	37.9%	20.7%	6.7%
사무직	빈도	23	21	4	48	
	직업 중 %	47.9%	43.8%	8.3%	11.1%	
특수고용직	빈도	18	9	8	35	
	직업 중 %	51.4%	25.7%	22.9%	8.1%	
프리랜서/알바	빈도	16	19	13	48	
	직업 중 %	33.3%	39.6%	27.1%	11.1%	
현장/생산직	빈도	18	11	6	35	
	직업 중 %	51.4%	31.4%	17.1%	8.1%	
활동가	빈도	5	7	2	14	
	직업 중 %	35.7%	50.0%	14.3%	3.2%	
전체	빈도	206	149	79	434	
	직업 중 %	47.5%	34.3%	18.2%	100.0%	

표 4 직업별 직장내 안전담당자 유무

직장의 규모 분류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17%나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함을 확인함.

고용규모 * 안전담당자 유무 교차표

		안전담당자 유무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고용 규모	5인 미만	빈도 44	68	24	136
	고용규모 중 %	32.4%	50.0%	17.6%	31.3%
	5인 이상 -20인 미만	빈도 94	61	25	180
	고용규모 중 %	52.2%	33.9%	13.9%	41.5%
20인 이상 -50인 미만	빈도	53	19	20	92
	고용규모 중 %	57.6%	20.7%	21.7%	21.2%
50인 이상	빈도	15	1	10	26
	고용규모 중 %	57.7%	3.8%	38.5%	6.0%
전체	빈도	206	149	79	434
	고용규모 중 %	47.5%	34.3%	18.2%	100.0%

표 5 직장규모별 안전담당자 유무

고용형태별 안전담당관리자 유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안전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이 41.7%이며, 잘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되었음.

고용형태 * 안전담당자 유무 교차표

			안전담당자 유무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71	52	18	141
		고용형태 중 %	50.4%	36.9%	12.8%	32.5%
	비정규직	빈도	29	29	13	71
		고용형태 중 %	40.8%	40.8%	18.3%	16.4%
	무기계약직	빈도	23	10	5	38
		고용형태 중 %	60.5%	26.3%	13.2%	8.8%
	계약직	빈도	51	25	25	101
		고용형태 중 %	50.5%	24.8%	24.8%	23.3%
시간제	빈도	17	20	11	48	
	고용형태 중 %	35.4%	41.7%	22.9%	11.1%	
특수고용	빈도	13	6	6	25	
	고용형태 중 %	52.0%	24.0%	24.0%	5.8%	
기타	빈도	2	7	1	10	
	고용형태 중 %	20.0%	70.0%	10.0%	2.3%	
전체	빈도	206	149	79	434	
	고용형태 중 %	47.5%	34.3%	18.2%	100.0%	

표 6 고용형태별 안전담당자 유무

○ 직장내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을 때

직장내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는 경우, 사업의 충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41%), 그렇다 (39%)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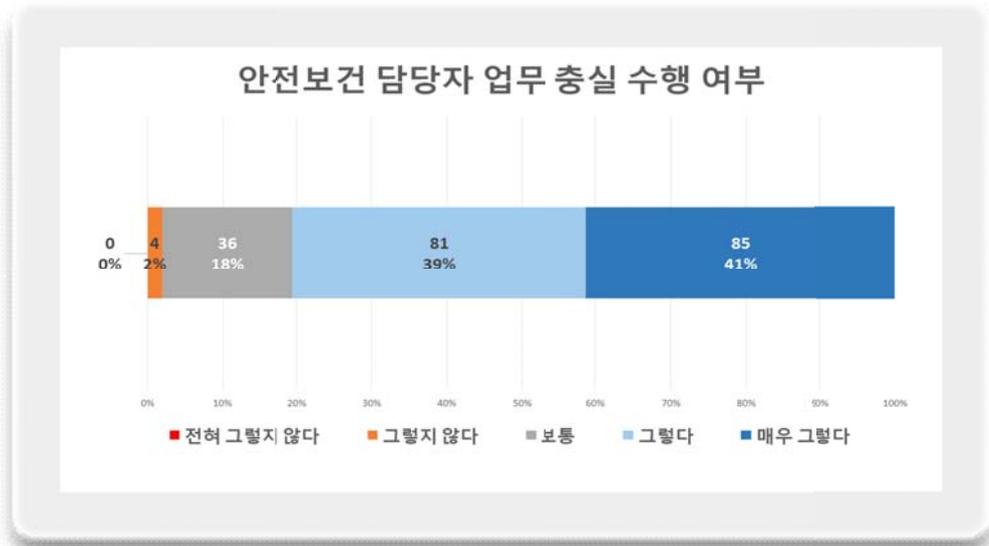


그림 8 직장내 안전보건담당자 업무충실수행여부

○ 최근 1년 동안의 산업안전사고 등 발생

최근 1년 동안 직장내 산업안전사고(질병)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 가 77%이며 사고(질병)가 있었다는 응답도 11%, 잘 모르겠다 는 응답도 12%나 됨. 안전사고의 경우 노동자들이 알 수 있지만, 질병은 잘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11%의 노동자들이 발생했다고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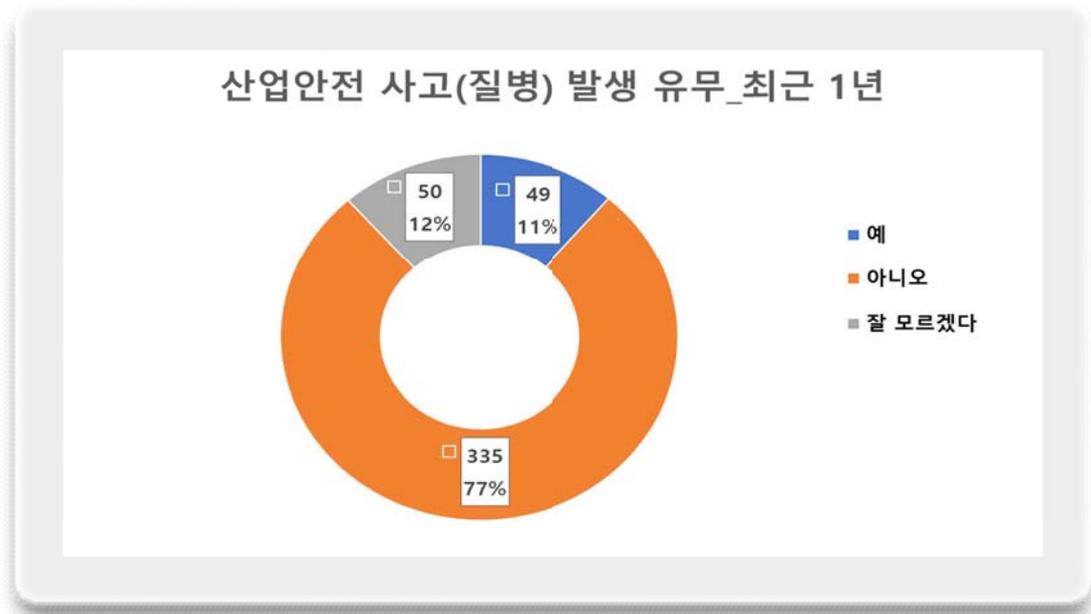


그림 9 산업안전사고(질병) 발생여부_최근1년

가장 높은 사고(질병) 발생 직업은 의료직으로 13명 44.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현장직이 22.9%, 상담직이 20.0%, 사회서비스직이 15.9%의 순으로 나타남.

직업 *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교차표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전체	
		예	아니오	모름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3	29	1	33
		직업 중 %	9.1%	87.9%	3.0%	7.6%
	돌봄노동직	빈도	4	46	9	59
		직업 중 %	6.8%	78.0%	15.3%	13.6%
	사회서비스직	빈도	7	35	2	44
		직업 중 %	15.9%	79.5%	4.5%	10.1%
	상담직	빈도	2	7	1	10
		직업 중 %	20.0%	70.0%	10.0%	3.0%
	연구/개발직	빈도	0	12	1	13
		직업 중 %	0.0%	92.3%	7.7%	3.0%
	영업/서비스직	빈도	4	57	5	66
		직업 중 %	6.1%	86.4%	7.6%	15.2%
	의료직	빈도	13	12	4	29
		직업 중 %	44.8%	41.4%	13.8%	6.7%
	사무직	빈도	1	43	4	48
		직업 중 %	2.1%	89.6%	8.3%	11.1%
특수고용직	빈도	3	24	8	35	
	직업 중 %	8.6%	68.6%	22.9%	8.1%	
프리랜서/알바	빈도	4	34	10	48	
	직업 중 %	8.3%	70.8%	20.8%	11.1%	
현장/생산직	빈도	8	22	5	35	
	직업 중 %	22.9%	62.9%	14.3%	8.1%	
활동가	빈도	0	14	0	14	
	직업 중 %	0.0%	100.0%	0.0%	3.2%	
전체	빈도	49	335	50	434	
	직업 중 %	11.3%	77.2%	11.5%	100.0%	

표 7 직업별 산업안전사고(질병) 발생유무

성별로 보면 남성은 14.9%, 여성은 9.9%로 남성들이 산업안전 사고(질병)율이 더 많음. (표5)
연령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40대가 16.8%로 가장 높으며, 30대가 15.7%, 50대가 10.7% 순으로 나타남.

성별 *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교차표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전체	
		예	아니오	모름		
성별	남성	빈도	18	91	12	121
		성별 중 %	14.9%	75.2%	9.9%	100.0%
	여성	빈도	31	244	38	313
		성별 중 %	9.9%	78.0%	12.1%	100.0%
전체	빈도	49	335	50	434	
	성별 중 %	11.3%	77.2%	11.5%	100.0%	

표 8 성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

연령별 산업안전사고(질병)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40대가 16.8%로 가장 높으며, 30대가 15.7%, 50대가 10.7%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 *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교차표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전체	
		예	아니오	모름		
연령대	20대	빈도	2	16	8	26
		연령대 중 %	7.7%	61.5%	30.8%	6.0%
	30대	빈도	8	42	1	51
		연령대 중 %	15.7%	82.4%	2.0%	11.8%
	40대	빈도	17	73	11	101
		연령대 중 %	16.8%	72.3%	10.9%	23.3%
	50대	빈도	17	122	20	159
		연령대 중 %	10.7%	76.7%	12.6%	36.6%
	60대 이상	빈도	5	82	10	97
		연령대 중 %	5.2%	84.5%	10.3%	22.4%
전체	빈도	49	335	50	434	
	연령대 중 %	11.3%	77.2%	11.5%	100.0%	

표 9 연령별 산업안전 사고(질병) 발생유무

고용규모별로 산업안전 사고(질병) 유무를 살펴보면 20인 이상 - 50인 미만 현장에서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5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11.7%로 나타남.

고용규모 *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교차표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고용규모	5인 미만	빈도 5	115	16	136
	고용규모 중 %	3.7%	84.6%	11.8%	31.3%
	5인 이상- 20인 미만	빈도 21	145	14	180
	고용규모 중 %	11.7%	80.6%	7.8%	41.5%
	20인 이상- 50인 미만	빈도 21	59	12	92
고용규모 중 %	22.8%	64.1%	13.0%	21.2%	
50인 이상	빈도	2	16	8	26
	고용규모 중 %	7.7%	61.5%	30.8%	6.0%
전체	빈도	49	335	50	434
	고용규모 중 %	11.3%	77.2%	11.5%	100.0%

표 10 고용규모별 산업안전 사고(질병) 발생유무

고용형태별 사고(질병) 유무는 정규직이 21.3%로 가장 높고, 특수고용이 12.0%로 높게 나타남.

고용형태 *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교차표

		최근 1년 산업안전 발생여부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30	103	8	141
	고용형태 중 %	21.3%	73.0%	5.7%	32.5%
	비정규직	빈도 6	56	9	71
	고용형태 중 %	8.5%	78.9%	12.7%	16.4%
	무기계약직	빈도 4	29	5	38
	고용형태 중 %	10.5%	76.3%	13.2%	8.8%
	계약직	빈도 4	85	12	101
	고용형태 중 %	4.0%	84.2%	11.9%	23.3%
	시간제	빈도 1	40	7	48
	고용형태 중 %	2.1%	83.3%	14.6%	11.1%
특수고용	빈도 3	15	7	25	
고용형태 중 %	12.0%	60.0%	28.0%	5.8%	
기타	빈도 1	7	2	10	
고용형태 중 %	10.0%	70.0%	20.0%	2.3%	
전체	빈도	49	335	50	434
	고용형태 중 %	11.3%	77.2%	11.5%	100.0%

표 11 고용형태별 산업안전 사고(질병) 발생유무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재사고(질병)에 대한 분류에서는 전체 사고(질병) 중 31명이 안전담당자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담당자가 있지만 산재예방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검증이 필요해 보임.

안전담당자 \ 산재사고	예	아니오	모름
	예	31	152
아니오	16	126	7
모름	2	57	20

표 12 안전사고 유무에 따른 최근1년간 산재사고(질병) 발생

○ 직장내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

현재 직장내에서 일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의 경우 업무관련스트레스가 45%, 근골격계 질병이 28%, 끼임 미끄러짐사고도 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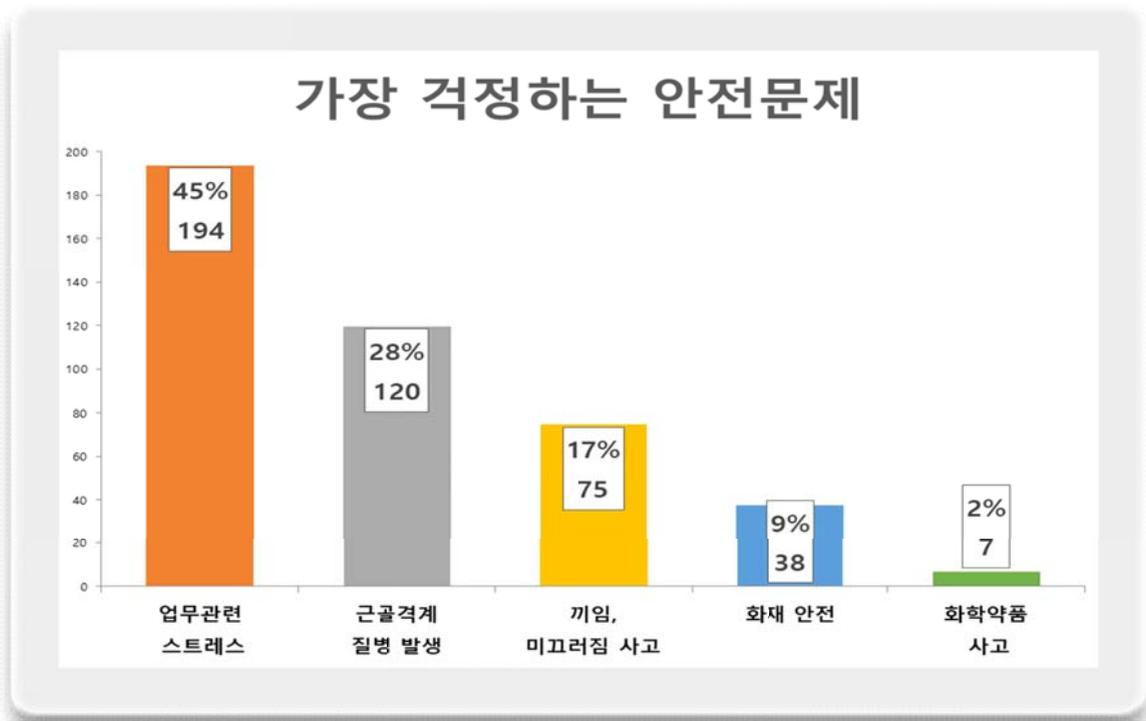


그림 10 업무관련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

직업별로 우려되는 안전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업에서 업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의료직은 근골격계질환발생에 대한 우려가 37.9%로 가장 높았고, 현장/생산직도 37.1%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프리랜서/알바들도 31.3%, 돌봄노동직도 30.5%, 경비/관리직은 30.3%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우려가 두 번째로 높았음. 또 끼임/미끄럼에 대한 우려는 현장/생산직에서 28.6%로 두 번째로 높았고, 돌봄노동직은 23.7%, 사회서비스직 22.7%로 세 번째로 끼임/미끄럼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직업 *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교차표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전체	
		근골격계 질환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10	5	14	4	0	33
		직업 중 %	30.3%	15.2%	42.4%	12.1%	0.0%	7.6%
	돌봄노동직	빈도	18	14	27	0	0	59
		직업 중 %	30.5%	23.7%	45.8%	0.0%	0.0%	13.5%
	사회서비스직	빈도	9	10	24	1	0	44
		직업 중 %	20.5%	22.7%	54.5%	2.3%	0.0%	10.1%
	상담직	빈도	2	0	8	0	0	10
		직업 중 %	20.0%	0.0%	80.0%	0.0%	0.0%	2.3%
	연구/개발직	빈도	3	0	6	2	2	13
		직업 중 %	23.1%	0.0%	46.2%	15.4%	15.4%	3.0%
	영업/서비스 직	빈도	16	12	27	11	0	66
		직업 중 %	24.2%	18.2%	40.9%	16.7%	0.0%	15.2%
	의료직	빈도	11	6	10	1	1	29
		직업 중 %	37.9%	20.7%	34.5%	3.4%	3.4%	6.7%
사무직	빈도	14	3	25	6	0	48	
	직업 중 %	29.2%	6.3%	52.1%	12.5%	0.0%	11.1%	
특수고용직	빈도	9	5	15	4	2	35	
	직업 중 %	25.7%	14.3%	42.9%	11.4%	5.7%	8.1%	
프리랜서/알 바	빈도	15	9	20	4	0	48	
	직업 중 %	31.3%	18.8%	41.7%	8.3%	0.0%	11.1%	
현장/생산직	빈도	13	10	6	4	2	35	
	직업 중 %	37.1%	28.6%	17.1%	11.4%	5.7%	8.1%	
활동가	빈도	0	1	12	1	0	14	
	직업 중 %	0.0%	7.1%	85.7%	7.1%	0.0%	3.2%	
전체	빈도	120	75	194	38	7	434	
	직업 중 %	27.6%	17.3%	44.7%	8.8%	1.6%	100.0%	

표 13 직업별 걱정되는 안전문제

성별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응답은 남성은 업무관련스트레스가 37.2%, 근골격계질병발생이 32.2%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업무관련스트레스가 47.6%로 나타났고, 근골격계질병발생에 대한 우려가 25.9%로 나타남.

성별 *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교차표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전체	
		근골격계 질병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성별	남성	빈도	39	21	45	13	3	121
	성별 중 %		32.2%	17.4%	37.2%	10.7%	2.5%	27.9%
성별	여성	빈도	81	54	149	25	4	313
	성별 중 %		25.9%	17.3%	47.6%	8.0%	1.3%	72.1%
전체	빈도	120	75	194	38	7	434	
	성별 중 %		27.6%	17.3%	44.7%	8.8%	1.6%	100.0%

표 14 성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연령대별 걱정되는 안전문제는 40대는 업무관련스트레스가 54.5%로 업무관련스트레스에 대한 타연령대별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근골격계질병발생에 대한 우려가 35.2%로 타 연령대 비해 높게 나타났음.

연령대 *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교차표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전체	
		근골격계 질병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연령대	20대	빈도	7	10	6	2	1	26
	연령대 중 %		26.9%	38.5%	23.1%	7.7%	3.8%	1.4%
연령대	30대	빈도	13	11	22	4	1	51
	연령대 중 %		25.5%	21.6%	43.1%	7.8%	2.0%	11.8%
연령대	40대	빈도	20	16	55	7	3	101
	연령대 중 %		19.8%	15.8%	54.5%	6.9%	3.0%	23.3%
연령대	50대	빈도	56	20	71	10	2	159
	연령대 중 %		35.2%	12.6%	44.7%	6.3%	1.3%	36.6%
연령대	60대 이상	빈도	24	18	40	15	0	97
	연령대 중 %		24.7%	18.6%	41.2%	15.5%	0.0%	22.4%
전체	빈도	120	75	194	38	7	434	
	연령대 중 %		27.6%	17.3%	44.7%	8.8%	1.6%	100.0%

표 15 연령대별 직장내 걱정되는 안전문제

고용규모별 우려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대부분 업무관련스트레스가 높게 나왔으며, 5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무관련스트레스가 37.2%로 가장 높고, 29.4%가 근골격계질병발생, 22.2%가 끼임/미끄러짐 사고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장 높게 나온 산재발생 현장규모로 3종류의 안전문제가 모두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규모 *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교차표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전체	
		근골격계 질병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고용 규모	5인 미만	빈도	38	15	67	14	2	136
		고용규모 중 %	27.9%	11.0%	49.3%	10.3%	1.5%	31.3%
	5인 이상 -20인 미만	빈도	53	40	67	18	2	180
		고용규모 중 %	29.4%	22.2%	37.2%	10.0%	1.1%	41.5%
	20인 이상 -50인 미만	빈도	23	16	46	5	2	92
		고용규모 중 %	25.0%	17.4%	50.0%	5.4%	2.2%	21.2%
	50인 이상	빈도	6	4	14	1	1	26
		고용규모 중 %	23.1%	15.4%	53.8%	3.8%	3.8%	6.0%
전체	빈도	120	75	194	38	7	434	
	고용규모 중 %	27.6%	17.3%	44.7%	8.8%	1.6%	100.0%	

표 16 고용규모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고용형태별 걱정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수고용직이 업무관련스트레스 응답이 높으며,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순으로 나타남. 반면 시간제는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안전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관련스트레스도 35.4%로 나타남. 이는 시간제 응답자들중 프리랜서/알바가 16명, 돌봄노동자가 10명으로 직업이 반영된 결과임 (표 3)

고용형태 *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교차표

		직장에서 걱정되는 안전문제					전체	
		근골격계 질병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고용 형태	정규직	빈도	37	26	61	15	2	141
	고용형태 중 %		26.2%	18.4%	43.3%	10.6%	1.4%	100.0%
	비정규직	빈도	23	14	28	4	2	71
	고용형태 중 %		32.4%	19.7%	39.4%	5.6%	2.8%	100.0%
	무기계약직	빈도	11	2	19	5	1	38
	고용형태 중 %		28.9%	5.3%	50.0%	13.2%	2.6%	100.0%
	계약직	빈도	19	19	52	10	1	101
	고용형태 중 %		18.8%	18.8%	51.5%	9.9%	1.0%	100.0%
시간제	빈도	18	9	17	4	0	48	
고용형태 중 %		37.5%	18.8%	35.4%	8.3%	0.0%	100.0%	
특수고용	빈도	6	4	14	0	1	25	
고용형태 중 %		24.0%	16.0%	56.0%	0.0%	4.0%	100.0%	
기타	빈도	6	1	3	0	0	10	
고용형태 중 %		60.0%	10.0%	30.0%	0.0%	0.0%	100.0%	
전체	빈도	120	75	194	38	7	434	
고용형태 중 %		27.6%	17.3%	44.7%	8.8%	1.6%	100.0%	

표 17 고용형태별 직장내 우려되는 안전문제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요인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노동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미비가 동일하게 응답률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작업량, 노사 안전불감증, 안전메뉴얼미흡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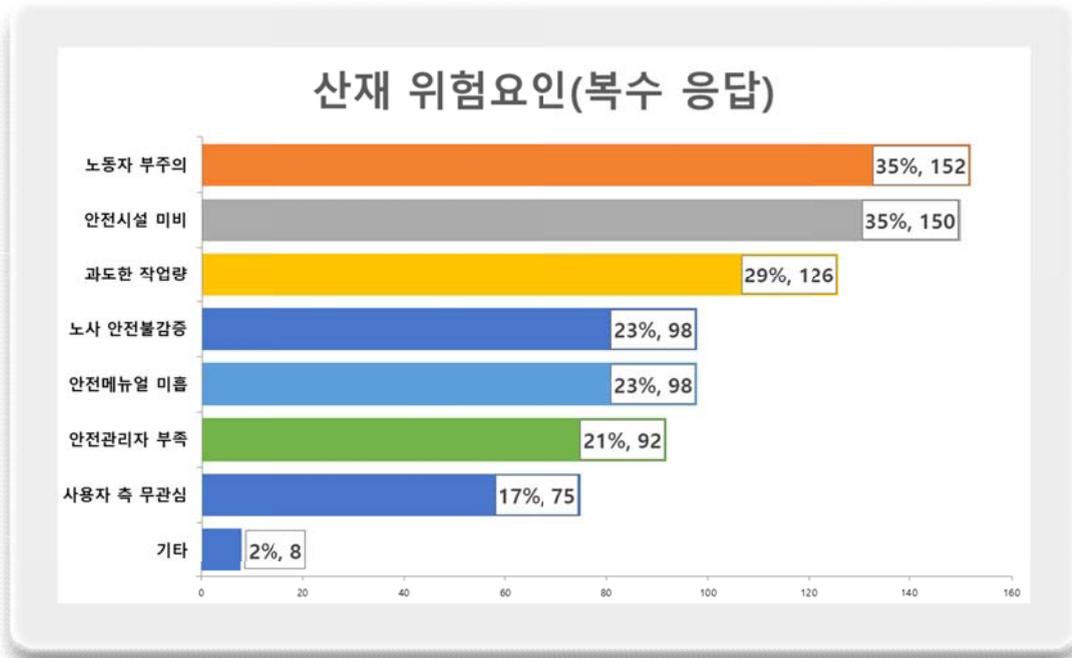


그림 11 산재발생의 위험요인

직업별로 산재발생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안전시설미비를 꼽았으며, 돌봄노동직은 안전관리자 부족을 가장 높게 다음으로 노동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미비로 꼽았으며, 사회서비스직은 안전시설미비를 주요원인으로 영업/서비스직은 안전시설미비 다음으로 노동자의부주의, 과도한 작업량을 꼽았고, 의료직은 노동자의 부주의와 과도한 업무량을 원으로 꼽았으며 사무직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산재원인으로 꼽았고, 특수고용직은 안전시설미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음.

		산재발생원인							전체	
		노동자 부주의	안전 시설 미비	사용자 측 무관심	과도한 작업량	안전 관리자 부족	안전 메뉴얼 미흡	노사 전반적 안전 불감증		기타
경비/관리직	빈도	14	10	6	7	7	4	4	0	33
	직업 중 %	42.4%	30.3%	18.2%	21.2%	21.2%	12.1%	12.1%	0.0%	9.8%
돌봄노동직	빈도	18	18	9	16	19	11	14	2	59
	직업 중 %	30.5%	30.5%	15.3%	27.1%	32.2%	18.6%	23.7%	3.4%	17.5%
사회서비스직	빈도	10	18	5	13	11	14	7	0	44
	직업 중 %	22.7%	40.9%	11.4%	29.5%	25.0%	31.8%	15.9%	0.0%	13.1%
상담직	빈도	0	3	3	3	2	3	3	0	10
	직업 중 %	0.0%	30.0%	30.0%	30.0%	20.0%	30.0%	30.0%	0.0%	3.0%
연구/개발직	빈도	6	4	3	5	1	5	1	0	13
	직업 중 %	46.2%	30.8%	23.1%	38.5%	7.7%	38.5%	7.7%	0.0%	3.9%
영업/서비스직	빈도	21	24	11	21	12	14	15	1	66
	직업 중 %	31.8%	36.4%	16.7%	31.8%	18.2%	21.2%	22.7%	1.5%	19.6%
의료직	빈도	11	10	3	11	6	7	2	2	29
	직업 중 %	37.9%	34.5%	10.3%	37.9%	20.7%	24.1%	6.9%	6.9%	8.6%
사무직	빈도	24	13	7	7	10	11	16	3	48
	직업 중 %	50.0%	27.1%	14.6%	14.6%	20.8%	22.9%	33.3%	6.3%	14.2%
특수고용직	빈도	10	15	8	9	6	6	8	0	35
	직업 중 %	28.6%	42.9%	22.9%	25.7%	17.1%	17.1%	22.9%	0.0%	10.4%
전체	빈도	114	115	55	92	74	75	70	8	337

표 18 산재위험요인에 대한 직업별 분류

연령대별 산재발생원인에 대한 응답 분류에서는 20대, 30대, 40대는 안전시설 미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50대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60대 이상에서는 노동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 미비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함.

연령대*성별 산재발생원인 교차표

		산재발생원인							전체		
		노동자 부주의	안전 시설 미비	사용자 측 무관심	과도한 작업량	안전 관리자 부족	안전 메뉴얼 미흡	노사 전반적 안전 불감증		기타	
성별	20대	빈도	11	15	3	11	6	10	7	1	26
	연령대	비율	42.3%	57.7%	11.5%	42.3%	23.1%	38.5%	26.9%	3.8%	6.0%
	30대	빈도	12	25	12	19	9	15	7	0	51
	연령대	비율	23.5%	49.0%	23.5%	37.3%	17.6%	29.4%	13.7%	0.0%	11.8%
	40대	빈도	32	40	25	32	31	23	25	3	101
	연령대	비율	31.7%	39.6%	24.8%	31.7%	30.7%	22.8%	24.8%	3.0%	23.3%
50대	빈도	65	38	19	47	27	31	43	4	159	
연령대	비율	40.9%	23.9%	11.9%	29.6%	17.0%	19.5%	27.0%	2.5%	36.6%	
60대 이상	빈도	32	32	16	17	19	19	11	0	97	
연령대	비율	33.0%	33.0%	16.5%	17.5%	19.6%	19.6%	11.3%	0.0%	22.4%	
전체	빈도	152	150	75	126	92	98	93	8	434	

표 19 연령대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고용규모별 산재발생원인에 대한 분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시설미비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메뉴얼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함.

규모*\$산재발생원인 교차표

		산재발생원인								전체
		노동자 부주의	안전 시설 미비	사용자 측 무관심	과도한 작업량	안전 관리자 부족	안전 메뉴얼 미흡	노사 전반적 안전 불감증	기타	
고용규모	5인 미만	빈도 50	44	23	39	28	19	32	2	136
	규모 중 %	36.8%	32.4%	16.9%	28.7%	20.6%	14.0%	23.5%	1.5%	31.3%
	5인 이상 - 20인미만	빈도 69	65	34	53	36	39	34	4	180
	규모 중 %	38.3%	36.1%	18.9%	29.4%	20.0%	21.7%	18.9%	2.2%	41.5%
20인이상 - 50인미만	빈도	26	32	14	26	21	28	20	1	92
	규모 중 %	28.3%	34.8%	15.2%	28.3%	22.8%	30.4%	21.7%	1.1%	21.2%
50인이상	빈도	7	9	4	8	7	12	7	1	26
규모 중 %	26.9%	34.6%	15.4%	30.8%	26.9%	46.2%	26.9%	3.8%	6.0%	
전체	빈도	152	150	75	126	92	98	93	8	434

표 20 직장규모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고용형태별 산재발원인에 대한 분류에서는 정규직은 안전시설미비를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무기계약직은 안전시설 미비를 계약직은 안전시설미비와 과도한 작업량을, 시간제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과도한 작업량을 산재발생원인중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고용형태*산재발생원인 교차표

		산재발생원인							전체		
		노동자 부주의	안전 시설 미비	사용자 측 무관심	과도한 작업량	안전 관리자 부족	안전 메뉴얼 미흡	노사 전반적 안전 불감증		기타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51	61	23	32	33	37	30	2	141
	고용형태 중 %		36.2%	43.3%	16.3%	22.7%	23.4%	26.2%	21.3%	1.4%	32.5%
	비정규직	빈도	30	19	13	23	19	16	10	0	71
	고용형태 중 %		42.3%	26.8%	18.3%	32.4%	26.8%	22.5%	14.1%	0.0%	16.4%
	무기계약직	빈도	10	14	5	10	7	8	7	1	38
	고용형태 중 %		26.3%	36.8%	13.2%	26.3%	18.4%	21.1%	18.4%	2.6%	8.8%
	계약직	빈도	28	36	17	36	17	26	26	4	101
	고용형태 중 %		27.7%	35.6%	16.8%	35.6%	16.8%	25.7%	25.7%	4.0%	23.3%
시간제	빈도	22	11	9	12	11	9	10	1	48	
고용형태 중 %		45.8%	22.9%	18.8%	25.0%	22.9%	18.8%	20.8%	2.1%	11.1%	
특수고용	빈도	8	7	5	11	4	2	6	0	25	
고용형태 중 %		32.0%	28.0%	20.0%	44.0%	16.0%	8.0%	24.0%	0.0%	5.8%	
기타	빈도	3	2	3	2	1	0	4	0	10	
고용형태 중 %		30.0%	20.0%	30.0%	20.0%	10.0%	0.0%	40.0%	0.0%	2.3%	
전체	빈도	152	150	75	126	92	98	93	8	434	

표 21 고용형태별 산재발생원인 분류

○ 노동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 필요한 사항

노동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시설확충이 54%, 철저한 안전교육 53%, 안전규정/지침강화가 36%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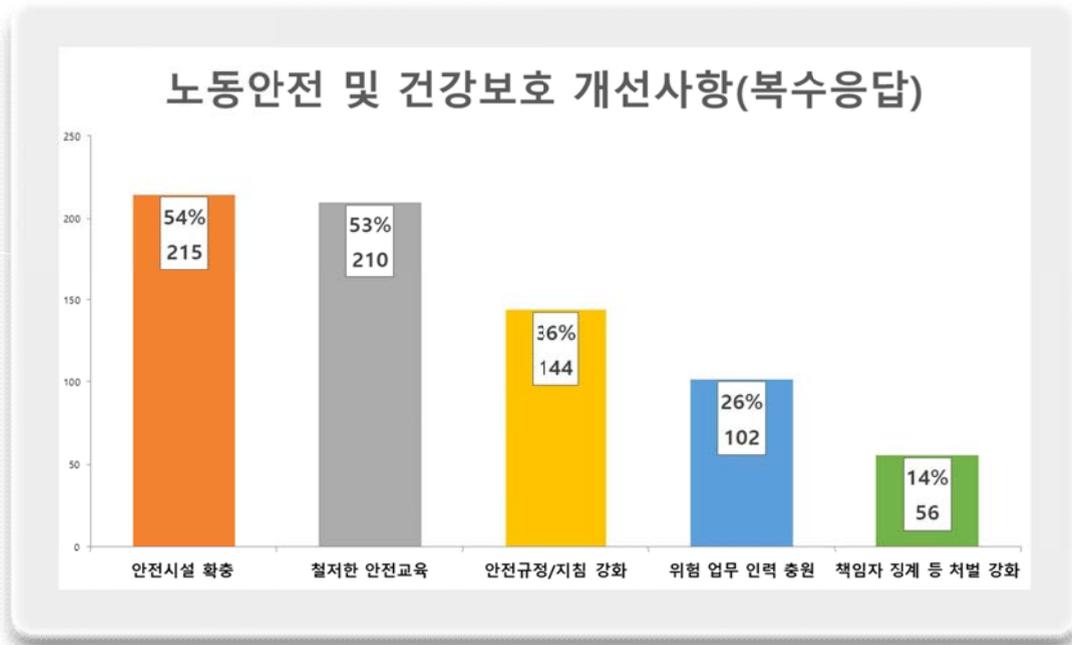


그림 12 노동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직업별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경비/관리직과 돌봄노동직, 사무직, 특수고용직은 안전 시설 확충과 철저한 안전교육을 개선사항으로 사회서비스직은 안전시설확충,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규정/지침강화를 상담직은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규정/지침강화를 의료직은 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규정/지침 강화를 개선사항 중 가장 높게 응답함.

직업*개선사항 교차표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전체	
		책임자 징계 등 처벌 강화	안전시설 확충	철저한 안전교육	안전규정 /지침 강화	위험 업무 인력 충원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1	19	18	6	7	33
	직업 중 %	3.0%	57.6%	54.5%	18.2%	21.2%	9.8%	
	돌봄노동직	빈도	13	29	31	21	17	59
	직업 중 %	22.0%	49.2%	52.5%	35.6%	28.8%	17.5%	
	사회서비스직	빈도	3	22	20	20	6	44
	직업 중 %	6.8%	50.0%	45.5%	45.5%	13.6%	13.1%	
	상담직	빈도	0	5	7	7	3	10
	직업 중 %	0.0%	50.0%	70.0%	70.0%	30.0%	3.0%	
	연구/개발직	빈도	5	6	6	4	3	13
	직업 중 %	38.5%	46.2%	46.2%	30.8%	23.1%	3.9%	
	영업/서비스직	빈도	8	32	35	18	18	66
	직업 중 %	12.1%	48.5%	53.0%	27.3%	27.3%	19.6%	
	의료직	빈도	4	16	11	18	2	29
	직업 중 %	13.8%	55.2%	37.9%	62.1%	6.9%	8.6%	
사무직	빈도	8	24	24	14	16	48	
직업 중 %	16.7%	50.0%	50.0%	29.2%	33.3%	14.2%		
특수고용직	빈도	3	24	22	13	11	35	
직업 중 %	8.6%	68.6%	62.9%	37.1%	31.4%	10.4%		
전체	빈도	45	177	174	121	83	337	

표 22 직업별 개선사항 응답 분류

○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대전시 지원정책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한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0인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노동안전교육지원, 노동안전 모범메뉴얼제작/배포와 노동안전 컨설팅, 노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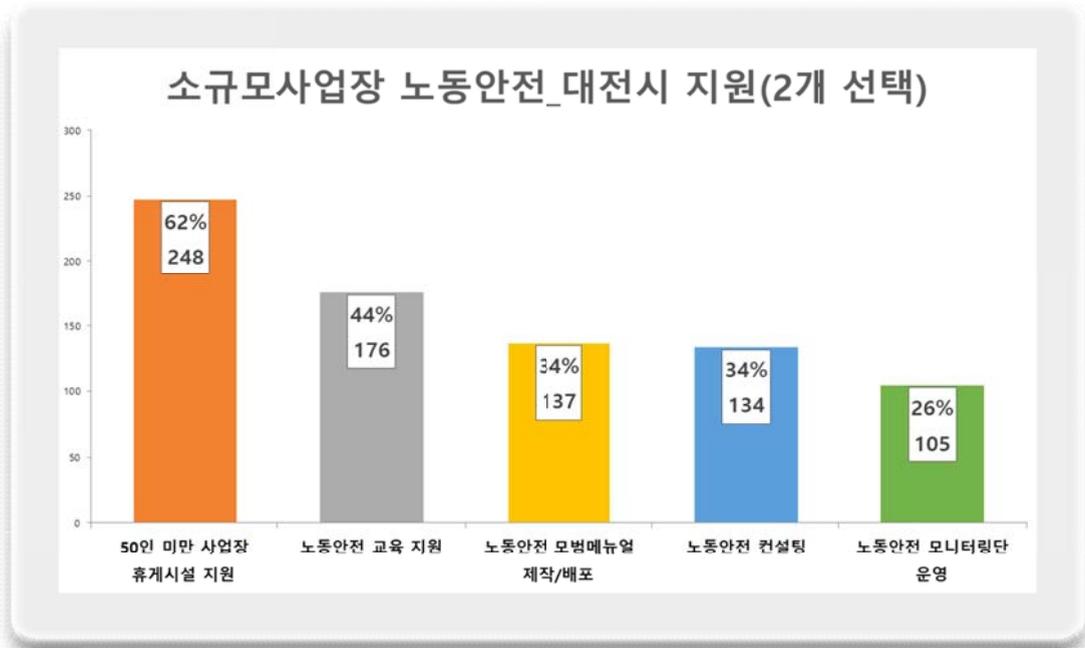


그림 13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한 대전시 지원정책

직업별로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부분 휴게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사회서비스직, 상담직, 의료직은 노동안전 모범메뉴얼 제작/배포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직업*대전시지원 교차표

		대전시지원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노동안전 컨설팅	노동안전 모니터링 단 운영	노동안전 모범 메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 교육 지원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23	4	7	8	24	33
		직업 중 %	69.7%	12.1%	21.2%	24.2%	72.7%	9.8%
	돌봄노동직	빈도	38	21	15	16	28	59
		직업 중 %	64.4%	35.6%	25.4%	27.1%	47.5%	17.5%
	사회서비스직	빈도	24	15	10	25	14	44
		직업 중 %	54.5%	34.1%	22.7%	56.8%	31.8%	13.1%
	상담직	빈도	6	2	2	7	3	10
		직업 중 %	60.0%	20.0%	20.0%	70.0%	30.0%	13.1%
	연구/개발직	빈도	10	4	4	4	4	13
		직업 중 %	76.9%	30.8%	30.8%	30.8%	30.8%	3.9%
	영업/서비스직	빈도	41	21	25	15	30	66
		직업 중 %	62.1%	31.8%	37.9%	22.7%	45.5%	3.0%
	의료직	빈도	12	11	6	16	13	29
		직업 중 %	41.4%	37.9%	20.7%	55.2%	44.8%	8.6%
	사무직	빈도	36	18	7	14	21	48
		직업 중 %	75.0%	37.5%	14.6%	29.2%	43.8%	14.2%
특수고용직	빈도	24	18	7	8	13	35	
	직업 중 %	68.6%	51.4%	20.0%	22.9%	37.1%	10.4%	
전체	빈도	214	114	83	113	150	337	

표 23 직업별 대전시 정책 분류

성별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을 분류해 보면 남녀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성별*대전시지원 교차표

		대전시지원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노동안전 컨설팅	노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노동안전 모범 매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 교육 지원		
성별	남성	빈도	77	39	27	46	53	121
		성별 중 %	63.6%	32.2%	22.3%	38.0%	43.8%	27.9%
	여성	빈도	193	103	83	102	145	313
		성별 중 %	61.7%	32.9%	26.5%	32.6%	46.3%	72.1%
전체	빈도	270	142	110	148	198	434	

표 24 성별 대전시지원 분류

고용규모별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5인 미만은 휴게시설지원, 노동안전컨설팅 순으로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노동안전 모범매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컨설팅 순으로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지원, 노동안전 모범매뉴얼 제작/배포순으로 각각 조사됨.

		노동안전관련 대전시 지원정책					전체	
		50인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노동안전 컨설팅	노동안전 모니터링 단운영	노동안전 모범 매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 교육지원		
고용 규모	5인 미만	빈도	81	49	23	38	32	223
		규모 중 %	36.3%	22.0%	10.3%	17.0%	14.3%	29.9%
	5인 이상 -20인 미만	빈도	114	59	20	62	39	294
		규모 중 %	38.8%	20.1%	6.8%	21.1%	13.3%	39.5%
	20인 이상 -50인 미만	빈도	60	28	23	37	29	177
		규모 중 %	33.9%	15.8%	13.0%	20.9%	16.4%	23.8%
	50인 이상	빈도	15	6	11	11	8	51
		규모 중 %	29.4%	11.8%	21.6%	21.6%	15.7%	6.8%
전체	빈도	270	142	77	148	108	745	

표 25 고용규모별 대전시 정책 분류

고용형태별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은 휴게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는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높게 나왔으며, 노동안전컨설팅은 정규직이 특수고용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노동안전모니터링단운영은 시간제에서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았고, 노동안전 모범메뉴얼 제작/배포는 정규직에서 노동안전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는 시간제와 계약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고용형태별		대전시 지원정책					전체
		50인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노동안전 컨설팅	노동안전 모니터링 단운영	노동안전 모범 매뉴얼 제작/배포	노동안전 교육지원	
고용 형태	정규직	빈도 83	58	29	50	54	274
	고용형태 중 %	30.3%	21.2%	10.6%	18.2%	19.7%	31.7%
	비정규직	빈도 40	24	18	28	32	142
	고용형태 중 %	26.7%	16.0%	18.7%	17.3%	21.3%	16.4%
	무기계약직	빈도 24	13	10	11	18	76
	고용형태 중 %	29.6%	16.0%	17.3%	14.8%	22.2%	8.8%
	계약직	빈도 70	22	33	23	54	202
	고용형태 중 %	35.5%	11.2%	16.8%	11.7%	24.9%	23.4%
시간제	빈도 30	10	20	12	30	102	
고용형태 중 %	29.4%	9.8%	19.6%	11.8%	29.4%	11.8%	
특수고용	빈도 17	11	5	6	9	48	
고용형태 중 %	35.4%	22.9%	10.5%	12.5%	18.8%	5.6%	
기타	빈도 6	4	5	4	1	20	
고용형태 중 %	30.0%	20.2%	25.0%	20.0%	5.0%	2.3%	
전체	빈도	270	142	120	134	198	864

표 26 고용형태별 대전시 정책 분류

○ 직장내 안전보건교육 충분히 실시하는지 여부

직장내에 안전보건교육을 얼마나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23%, 그렇다 31%, 보통 36%, 그렇지 않다 7%, 전혀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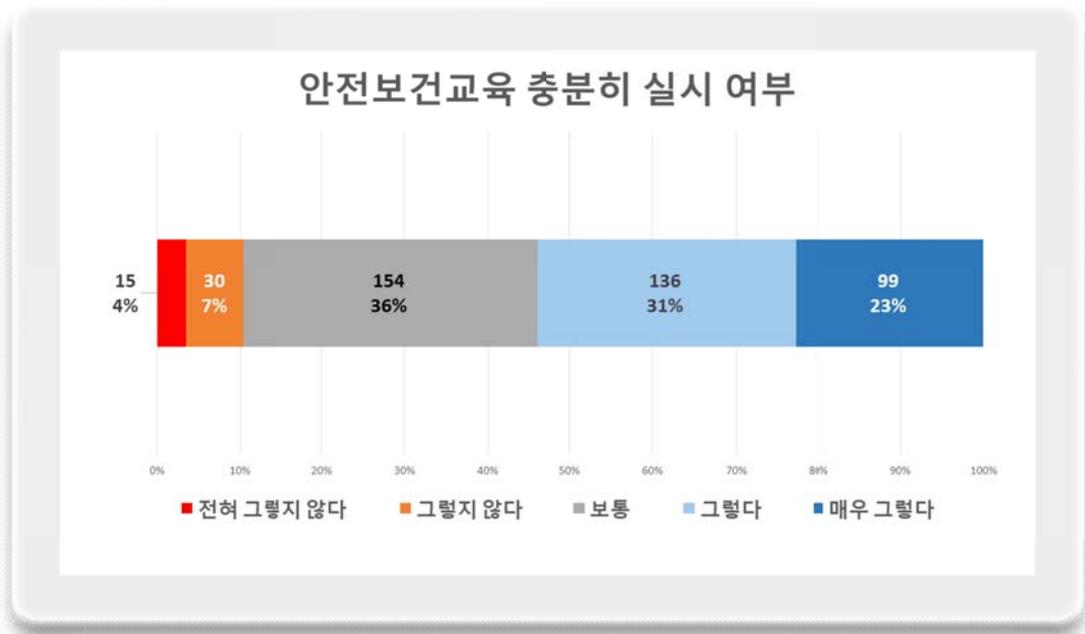


그림 14 직장내 안전보건교육 충분히 실시여부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직장내 안전보건교육 충분히 실시여부에 대한 분류에서는 담당자가 있지만 그렇다는 긍정적 입장은 50.23%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그림 8에서 안전보건담당자 업무 충실수행여부에서는 41%가 매우그렇다. 3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실시 여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임.

안전담당자	교육 충실 정도					계
	1	2	3	4	5	
예	45	39	22	70	37	213
아니오	30	29	63	18	5	145
모름	14	13	19	9	5	60

표 27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교육실시 척도

○ 노동안전 비상시 매뉴얼 마련 및 훈련여부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인 훈련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8%, 그렇다는 응답이 29%로 보통 38% 등으로 응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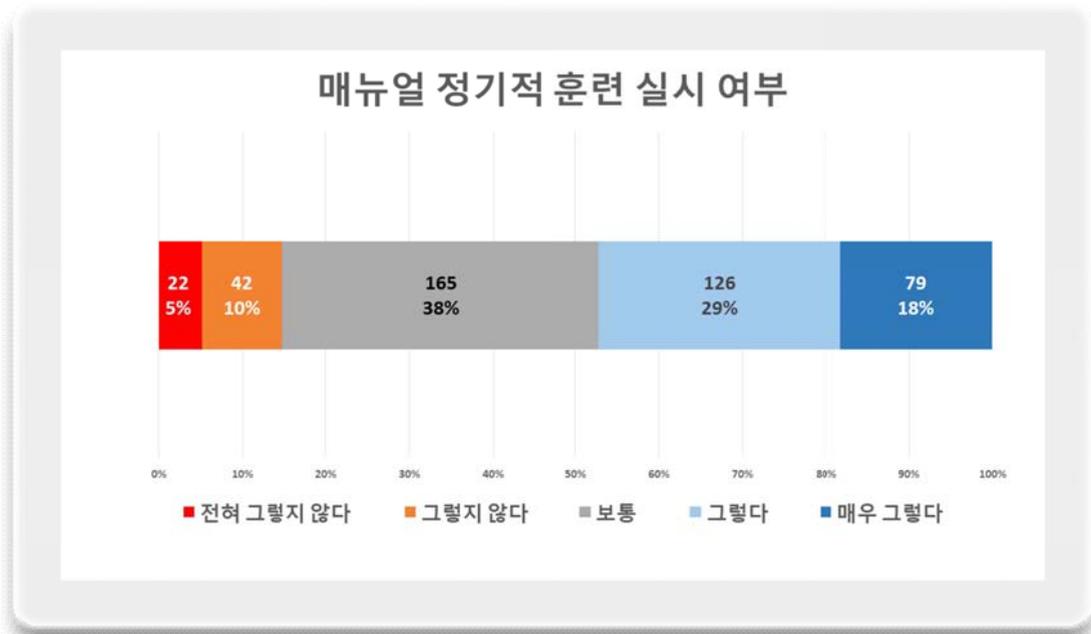


그림 15 직장내 매뉴얼마련과 정기적 훈련실시 여부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척도를 비교해 보니,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어도, 매뉴얼마련이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와 그렇다 분류가 40.5% 밖에 되지 못한다. 안전보건 담당자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매뉴얼 훈련 실시 척도	안전담당자					계
	1	2	3	4	5	
예	50	29	24	41	29	173
아니오	32	32	42	12	7	125
모름	12	15	20	7	3	57

표 28 안전담당자유무에 따른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척도

직업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여부에 대한 척도를 비교해 보니, 가장 낮은 직업은 경비/관리직, 돌봄노동직,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특수고용직, 현장/생산직 등의 직업에서 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뉴얼 훈련 실시 척도	1	2	3	4	5	계
안전담당자						
경비/관리직	10	4	18	2	2	36
돌봄노동직	13	8	10	11	7	49
사회서비스직	16	12	5	5	2	40
상담직	3	1	1	1	0	6
연구개발직	3	2	1	3	2	11
영업/서비스직	12	15	12	13	8	60
의료직	9	9	2	3	0	23
사무직	4	4	21	7	7	43
특수고용직	9	2	7	4	3	25
프리랜서/알바	4	9	17	8	7	45
현장/생산직	8	12	2	3	1	26
활동가	3	5	2	0	0	10

표 29 직업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 척도

직장고용규모별로 매뉴얼 마련과 훈련실시여부에 대한 척도를 비교해 보니, 5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하고 매뉴얼마련이나 정기적 훈련실시 척도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매뉴얼 훈련 실시 척도	1	2	3	4	5	계
고용규모						
20인 이상 ~ 50인 미만	26	18	9	16	6	75
50인 이상	4	3	5	5	6	23
5인 미만	24	23	34	19	11	111
5인 이상 ~ 20인 미만	40	32	38	20	16	146

표 30 직장고용규모별 매뉴얼마련과 훈련실시척도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견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안전교육에 대한 일상적인 강조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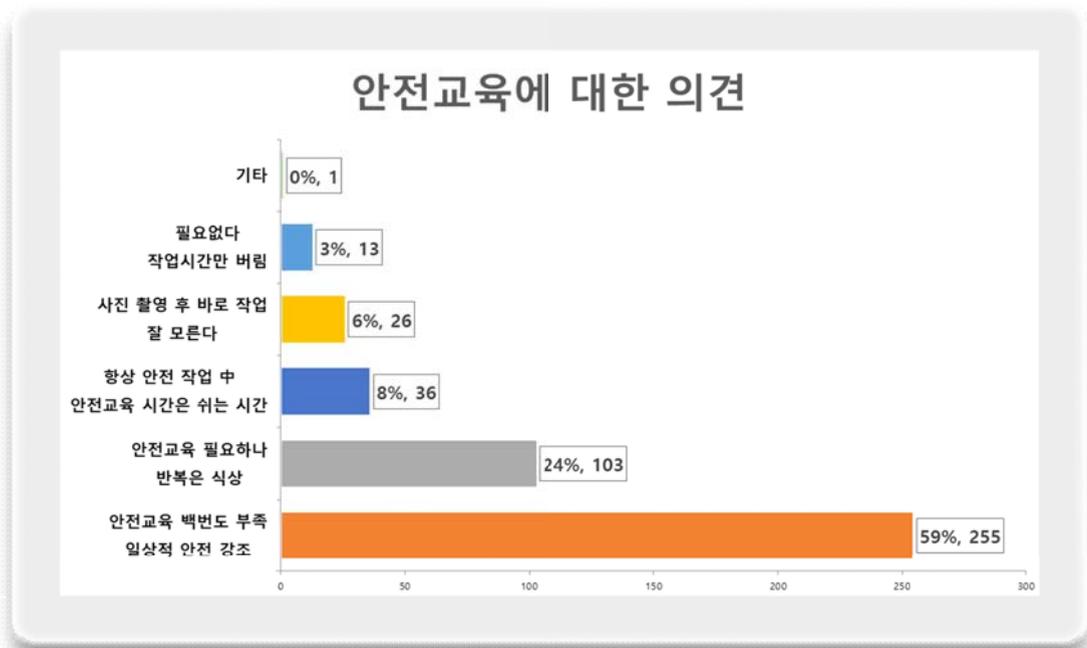


그림 16 응답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고용규모별로 안전교육에 대한 응답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안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 노동자층에서 매우 높았음.

고용규모 *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 교차표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					전체	
		별 필요 없는 교육으로 작업시간만 까먹는다	항상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안전교육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안전교육은 모여서 사진만 찍고 바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안전교육은 필요하지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식상하다	안전교육은 백번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 받아야 하고 일상적으로도 안전은 강조되어야 한다		
고용규모	5인 미만	빈도 고용규모 중 %	3 2.2%	12 8.8%	6 4.4%	27 19.9%	88 64.7%	136 100.0%
	5인 이상 -20인 미만	빈도 고용규모 중 %	6 3.4%	7 3.9%	10 5.6%	43 24.0%	113 63.1%	179 100.0%
	20인 이상 -50인 미만	빈도 고용규모 중 %	2 2.2%	17 18.5%	10 10.9%	22 23.9%	41 44.6%	92 100.0%
	50인 이상	빈도 고용규모 중 %	2 7.7%	0 0.0%	0 0.0%	11 42.3%	13 50.0%	26 100.0%
전체		빈도 고용규모 중 %	13 3.0%	36 8.3%	26 6.0%	103 23.8%	255 58.9%	433 100.0%

표 31 고용규모별 안전교육에 대한 응답 분류

직업별로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하지만 돌봄노동직, 영업/서비스업, 사무직, 프리랜서/알바는 반복교육에 대한 식상함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음.

직종	안전교육 의견	별필요 없는교육	모여서 사진만 찍음	백번받아도 또 받아야	반복교육 식상	안전교육은 쉬는시간	계
경비/관리직		0	0	28	4	1	33
돌봄노동직		0	5	30	17	6	58
사회서비스직		1	6	28	7	2	44
상담직			3	6	1	0	10
연구개발직		1	1	8	3	0	13
영업/서비스직		2	2	33	20	9	66
의료직		1	1	15	4	8	29
사무직		4	1	23	18	2	48
특수고용직		1	1	22	8	3	35
프리랜서/알바		2	1	29	13	3	48
현장/생산직		1	5	23	4	2	35
활동가		0	0	10	4	0	14

표 32 직업별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

◎ 휴게시설에 대한 응답

○ 휴게실 유무

휴게실에 대한 질문에는 49%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1%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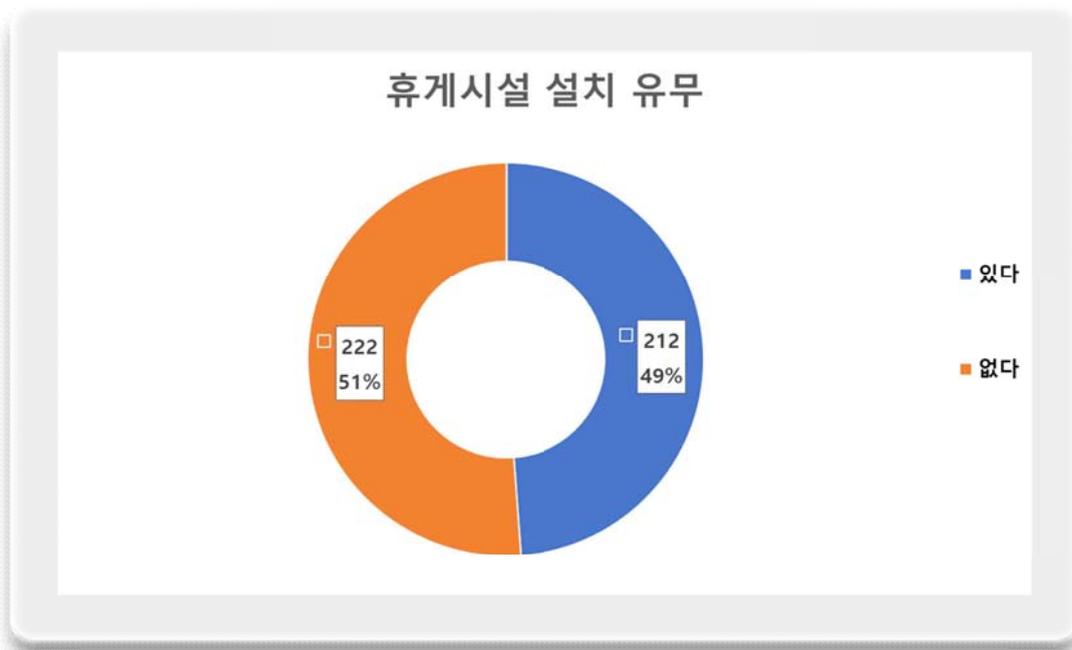


그림 17 직장내 휴게시설 설치유무

직업별 휴게실에 대한 응답분류를 보면, 경비관리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프리랜서/알바등 이 휴게시설이 있다라는 응답률이 없다보다 조금 많았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옴.

직업 * 직장 내 휴게실 유무 교차표

		직장 내 휴게실 유무		전체	
		있다	없다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19	14	33
		직업 중 %	57.6%	42.4%	100.0%
	돌봄노동직	빈도	23	36	59
		직업 중 %	39.0%	61.0%	100.0%
	사회서비스직	빈도	20	24	44
		직업 중 %	45.5%	54.5%	100.0%
	상담직	빈도	5	5	10
		직업 중 %	50.0%	50.0%	100.0%
	연구/개발직	빈도	6	7	13
		직업 중 %	46.2%	53.8%	100.0%
	영업/서비스직	빈도	39	27	66
		직업 중 %	59.1%	40.9%	100.0%
	의료직	빈도	11	18	29
		직업 중 %	37.9%	62.1%	100.0%
	사무직	빈도	25	23	48
		직업 중 %	52.1%	47.9%	100.0%
특수고용직	빈도	15	20	35	
	직업 중 %	42.9%	57.1%	100.0%	
프리랜서/알바	빈도	27	21	48	
	직업 중 %	56.3%	43.8%	100.0%	
현장/생산직	빈도	17	18	35	
	직업 중 %	48.6%	51.4%	100.0%	
활동가	빈도	5	9	14	
	직업 중 %	35.7%	64.3%	100.0%	

표 33 직업별 휴게시설 응답 분류

고용규모별 휴게실에 대한 응답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있다는 응답이 57.6%, 50인 이상이 73.1%로 조사됨.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42.4%로 조사됨.

고용규모 * 직장 내 휴게실 유무 교차표

			직장 내 휴게실 유무		전체
			있다	없다	
고용규모	5인 미만	빈도	59	77	136
		고용규모 중 %	43.4%	56.6%	31.3%
	5인 이상-20인 미만	빈도	81	99	180
		고용규모 중 %	45.0%	55.0%	41.5%
	20인 이상-50인 미만	빈도	53	39	92
		고용규모 중 %	57.6%	42.4%	21.2%
	50인 이상	빈도	19	7	26
		고용규모 중 %	73.1%	26.9%	6.0%
전체	빈도	212	222	434	
	고용규모 중 %	48.8%	51.2%	100.0%	

표 34 고용규모별 휴게시설 분류

○ 휴게실 이용빈도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빈도를 질문했을 때, 일 1-2회 이용자들은 55%로 휴게시설로 이용을 하고 계셨고, 주 1-2회는 17%, 월 1-2회는 3%, 거의 이용안함은 25%로 45% 정도의 응답자들은 휴게시설로 이용을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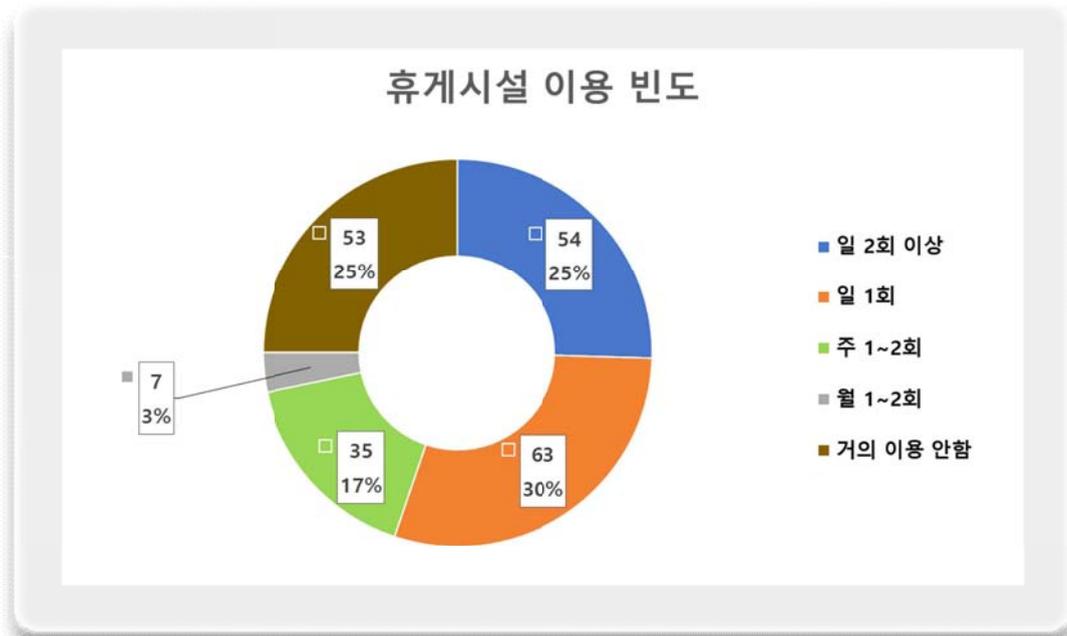


그림 18 직장내 휴게시설 이용빈도

연령대별 휴게시설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휴게실 이용빈도수가 올라가나, 60대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이용률이 떨어져 경비/관리직들이 많아 직업에 따라 휴게시설이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 이를 반영한 조사로 보임.

연령대 * 휴게실 이용 빈도 교차표

		휴게실 이용 빈도					전체	
		일 2회 이상	일 1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연령대	20대	빈도	3	8	4	0	3	18
		연령대 중 %	16.7%	44.4%	22.2%	0.0%	16.7%	8.5%
	30대	빈도	5	7	6	1	3	22
		연령대 중 %	22.7%	31.8%	27.3%	4.5%	13.6%	10.4%
	40대	빈도	10	17	4	3	16	50
		연령대 중 %	20.0%	34.0%	8.0%	6.0%	32.0%	23.6%
	50대	빈도	28	18	11	2	16	75
		연령대 중 %	37.3%	24.0%	14.7%	2.7%	21.3%	35.4%
	60대 이상	빈도	8	13	10	1	15	47
		연령대 중 %	17.0%	27.7%	21.3%	2.1%	31.9%	22.2%
	전체	빈도	54	63	35	7	53	212
		연령대 중 %	25.5%	29.7%	16.5%	3.3%	25.0%	100.0%

표 35 연령대별 휴게시설 이용빈도

직업별 휴게실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경비/관리직과 돌봄노동자들의 이용율이 떨어짐. 상대적으로 상담직, 의료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직업 * 휴게실 이용 빈도 교차표

		휴게실 이용 빈도					전체	
		일 2회 이상	일 1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4	5	4	0	6	19
		직업 중 %	21.1%	26.3%	21.1%	0.0%	31.6%	9.0%
	돌봄노동직	빈도	2	9	3	1	8	23
		직업 중 %	8.7%	39.1%	13.0%	4.3%	34.8%	10.8%
	사회서비스직	빈도	3	7	4	0	6	20
		직업 중 %	15.0%	35.0%	20.0%	0.0%	30.0%	9.4%
	상담직	빈도	2	1	1	0	1	5
		직업 중 %	40.0%	20.0%	20.0%	0.0%	20.0%	2.4%
	연구/개발직	빈도	1	1	3	0	1	6
		직업 중 %	16.7%	16.7%	50.0%	0.0%	16.7%	2.8%
	영업/서비스직	빈도	16	10	7	2	4	39
		직업 중 %	41.0%	25.6%	17.9%	5.1%	10.3%	18.4%
	의료직	빈도	3	4	1	0	3	11
		직업 중 %	27.3%	36.4%	9.1%	0.0%	27.3%	5.2%
	사무직	빈도	6	10	4	1	4	25
		직업 중 %	24.0%	40.0%	16.0%	4.0%	16.0%	11.8%
특수고용직	빈도	2	4	1	2	6	15	
	직업 중 %	13.3%	26.7%	6.7%	13.3%	40.0%	7.1%	
프리랜서/알바	빈도	7	9	2	1	8	27	
	직업 중 %	25.9%	33.3%	7.4%	3.7%	29.6%	12.7%	
현장/생산직	빈도	6	2	4	0	5	17	
	직업 중 %	35.3%	11.8%	23.5%	0.0%	29.4%	8.0%	
활동가	빈도	2	1	1	0	1	5	
	직업 중 %	40.0%	20.0%	20.0%	0.0%	20.0%	2.4%	
전체	빈도	54	63	35	7	53	212	
	직업 중 %	25.5%	29.7%	16.5%	3.3%	25.0%	100.0%	

표 36 직업별 휴게시설 이용빈도

○ 휴게실 이용의 어려움

휴게실 자주 이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66%로 이며 회사눈치가 보여서가 29%, 다른용도사용이 20% 등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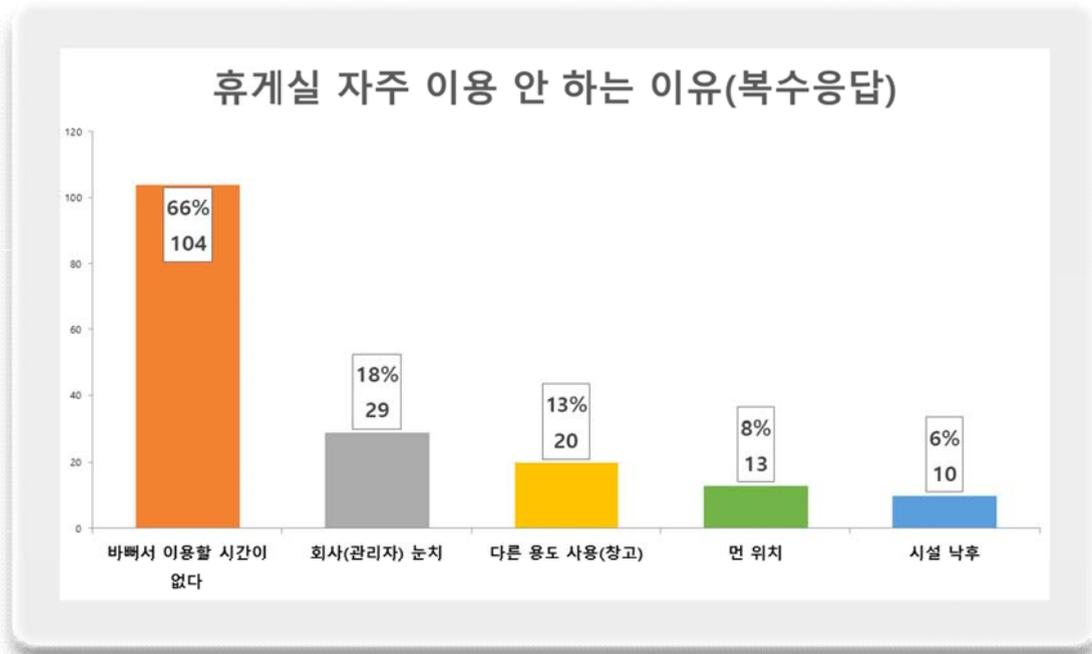


그림 19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직업별 휴게실 미사용 이유를 분류해 보면 경비/관리직은 바빠서와 관리자 눈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업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다만 의료직의 경우 다른용도로 사용되거나, 바빠서, 낙후되어서 등의 이유가 비슷하게 응답됨.

직업*휴게실미사용 교차표

		휴게실 미사용 이유					전체	
		위치가 멀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창고 등)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너무 낙후된 시설	회사(관리자 등)의 눈치가 보인다		
직업	경비/관리직	빈도	2	1	8	0	6	15
	직업 중 %	13.3%	6.7%	53.3%	0.0%	40.0%	12.1%	
	돌봄노동직	빈도	0	3	15	3	2	21
	직업 중 %	0.0%	14.3%	71.4%	14.3%	9.5%	17.0%	
	사회서비스직	빈도	2	2	12	0	4	17
	직업 중 %	11.8%	11.8%	70.6%	0.0%	23.5%	13.7%	
	상담직	빈도	0	0	3	0	0	3
	직업 중 %	0.0%	0.0%	100.0%	0.0%	0.0%	2.4%	
	연구/개발직	빈도	0	1	3	1	1	5
	직업 중 %	0.0%	20.0%	60.0%	20.0%	20.0%	4.0%	
영업/서비스직	빈도	1	2	18	2	1	23	
직업 중 %	4.3%	8.7%	78.3%	8.7%	4.3%	18.6%		
의료직	빈도	1	2	2	2	1	8	
직업 중 %	12.5%	25.0%	25.0%	25.0%	12.5%	4.8%		
사무직	빈도	3	3	12	2	3	19	
직업 중 %	15.8%	15.8%	63.2%	10.5%	15.8%	15.3%		
특수고용직	빈도	1	3	9	1	0	13	
직업 중 %	7.7%	23.1%	69.2%	7.7%	0.0%	10.5%		
전체	빈도	10	17	82	11	18	124	

표 37 직업별 휴게시설 미이용에 대한 분류

○ 그 밖의 의견들

노동안전 관련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그림 20 기타 노동안전 관련 애로사항

2. 실태조사 결론

● 결론

○ 전체 응답자는 12개 직종 434명의 노동자가 응답해 주었고, 이중 여성이 72%로 313명, 남성이 28%로 121명이 응답해 줌. 연령대는 20대 6%, 30대 12%, 40대 23%, 50대 37%, 60대 이상도 22% 응답함.

○ 직업별로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업/서비스직 15%, 돌봄직은 14%, 프리랜서/알바는 11%, 사회서비스직 10%, 사무직 11%, 특수고용직 8%, 현장/생산직 8%, 의료직 7%, 경비/관리직 8%, 연구/개발직 3%, 활동가 3%, 상담직 2%로 나뉨

○ 응답자들의 직업별 연령별 분류를 해 보면 경비/관리직과 영업/서비스직은 60세 이상이 많았고, 돌봄노동직,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프리랜서/알바, 현장/생산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음.

○ 직장의 위치는 대덕구 38%, 서구 28%, 동구, 유성구 12%, 중구가 7%로 조사됨

○ 직장의 고용규모는 5인 미만 31%, 5인 이상-20인 미만 42%, 20인 이상-50인 미만 21%, 50인 이상은 6%로 나타남. 직업별로 직장규모를 살펴보면, 5인 미만은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프리랜서/알바, 특수고용직이 많이 분포됨. 5인 이상- 20인 미만사업장은 경비/관리직, 돌봄노동직,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의료직, 사무직, 현장/생산직이 분포가 높았음.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돌봄, 사회서비스, 의료직 등이 상대적으로 응답자들이 많았음.

○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141명, 시간제가 101명, 계약직이 71명 등으로 직업별로는 경비/관리직, 돌봄노동, 프리랜서/알바는 계약직이 많았고,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은 정규직 응답자가 많았고, 시간제는 프리랜서/알바 응답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응답자들은 안전보건조직이나 관리담당자의 유무에 대한 대답에서 48%가 있다고 응답, 반면 34%는 없다, 18%는 모른다고 응답함. 직장규모로 보면 의무가 아닌 5인 미만은 50%가 없다고 응답했고, 모른다고도 17%였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을 보면 20인 미만이 없다는 응답이 33.9%, 모른다는 13.9%였으며 50인 미만은 20.7%가 없다, 21.7%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음을 확인함.

○ 직장 내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80%가 평가하고 있음.

○ 최근 1년간의 산업안전사고(질병)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11%가 발생했다고 응답하고, 77%가 아니요, 1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직업별로 발생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의료직이 44.8%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현장/생산직이 22.9%, 상담직은 20.0%, 사회서비스직은 15.9%로 응답하여 높은 발생률이 보임. 성별로는 남성이 14.9%가 발생했다고 응답함.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에서 높게 응답됨. 고용규모별로는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발생률이 22.8%로 가장 높아,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음. 고용형태별 산업안전 발생률은 정규직이 21.3%로 가장 높았음.

한편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재사고(질병) 발생에 대한 분류에서는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31건의 산재가 발생해 안전담당자의 업무충실도(그림 8)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옴.

○ 직장 내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응답에는 업무관련스트레스가 45%, 근골격계질환이 28%, 끼임/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17%, 화재가 9%, 화학약품이 2%로 조사됨. 직업별로 보면 대부분 업무관련스트레스 걱정이 높았지만,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우려는 의료직, 현장/생산직에서 높게 나타났음. 또 끼임/미끄러짐 사고 우려는 현장/생산직, 돌봄노동직, 사회서

비스직에서 우려가 높게 나왔으며, 상담직과 활동가들의 업무스트레스는 각각 80.0%, 85.7%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연구/개발직과 영업/의료직은 타 직업에 비해 화재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다만 고용형태에서 시간제 노동자들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걱정이 앞섰음.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노동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미비가 비슷하게 응답됨. 직업별로는 경비/관리직 노동자들은 부주의를 1순위로 꼽았고, 돌봄노동직은 안전관리자부족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는 안전시설미비를 상담직은 안전시설미비, 사용자측 무관심, 과도한 업무량, 안전메뉴얼미흡, 노사전반적인안전불감증에 골고루 응답하였음. 사무직만 노동자부주의를 1순위로 꼽았고, 나머지 직군은 안전시설미비를 산재발생원인의 1순위로 꼽았음. 고용규모별 산재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부주의를 1순위로 꼽았으며, 20인이상 사업장부터 안전시설미비, 과도한 작업량, 업무메뉴얼미흡 등을 원인으로 높게 응답함.

○ 노동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철저한 안전교육에 대해 높게 응답함. 직업별로는 경비/관리직, 사회서비스직, 의료직, 사무직, 특수고용직 등이 안전시설 확충을 개선사항중 1순위로 꼽았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담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등이 1순위로 꼽았음. 또 안전규정/지침강화에 대해서는 상담직과 의료직이 높게 응답하였음.

○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62%로 가장 높았고, 노동안전교육지원이 44%, 노동안전모범메뉴얼제작/배포와 노동안전컨설팅이 34%, 노동안전모니터링단운영이 26%로 조사됨. 직업별로는 대부분 휴게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경비/관리직은 노동안전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직과 의료직은 노동안전모범메뉴얼제작/배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2순위를 보면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안전교육지원을, 사회서비스직과 상담직은 휴게시설지원이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노동안전교육지원요구가 높았던 직업은 돌봄노동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등이었음. 노동안전컨설팅에 대한 응답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충분한 교육실시와 관련된 질문에는 매우그렇다가 23%, 그렇다가 31% 나와 전체 54%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지만, 안전담당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50.23%만 긍정적 답변을 함. 안전담당자 업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노동안전 비상시 메뉴얼 마련 및 훈련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8%, 그렇다는 응답이 29%로 전체 응답자의 47%만 긍정적 대답을 했음.

또 안전담당자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해 보면 담당자가 있는 경우 긍정적 답변이 40.5%밖에

되지 못함. 전체 47%보다 낮음.

직업별로는 경비노동자, 돌봄노동직, 사회서비스직, 영업/서비스직, 현장/생산직의 답변이 낮게 나타남. 가장 필요한 직군에서 매뉴얼마련이나 정기적 훈련이 시행되고 있지 못함.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답변이 나옴.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문에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59%로 응답함. 고용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매우 높게 나타남.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식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직업별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돌봄노동직, 영업/서비스직, 사무직, 프리랜서/알바에서 반복교육으로 식상해 하고 있어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휴게시설에 대한 응답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49%, 없다는 응답이 51%였음. 직업별로는 의무화되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돌봄노동직, 사회서비스직, 연구/개발직, 의료직, 특수고용직, 현장/생산직, 활동가 등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또 휴게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42.4%가 없다고 응답했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26.9%가 없다고 응답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휴게시설 이용 빈도에 관한 질문에는 일 1-2회 이상 이용자들은 55%였으며, 주 1-2회는 17%, 월 1-2회는 3%, 이용안함도 25%로 휴게시설은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휴게시설 이용빈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졌지만, 오히려 60대 이상에서는 낮아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많은 경비/관리직, 돌봄노동직은 직업에 따른 휴게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미설치로 인한 결과임.

○ 휴게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는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66%, 회사 눈치 때문에 29%, 다른용도사용도 20%나 되었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설들이 많았음. 특히 직업별로 경비/관리직은 바쁘다와 관리자의 눈치로 이용 못 하고 있었고, 다른 직업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라고 응답함.

○ 기타 노동안전 관련 현장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으로는 법과 제도에 대한 지도와 지원병행,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사업주/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 산재에 대한 보상과 치료 등 적적할 후속조치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취약업체에 대한 지원, 근무시간에 노동안전교육 실시 등의 요구가 있었음.

□ 결론적으로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안전관리체계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이나 관리담당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중 20인 미만은 없다는 응답이 33.9%, 모른다가 13.9%나 되었으며, 50인 미만은 없다는 응답은 20.7%, 모른다는 응답은 21.7%로 50% 가까이 조직과 담당자가 없거나 현장 노동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 또 산업안전사고(질병)에 대해서는 11%가 발생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현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산재발생원인에 대해서는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시설미비, 과도한 작업량, 업무메뉴얼미흡 등의 원인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함을 또다르게 보여주고 있다.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대전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에서는 휴게시설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휴게시설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2.4%가 없다고 응답했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26.9%가 없다고 응답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바빠서 이용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현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05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5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대전광역시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의무 강화뿐만 아니라, 노동안전 보건과 지역 안전을 포괄하는 이행 정책이 필요하다.

□ 대전광역시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지원 조례가 2022년 10월 14일 제정되었다. 22년 9월 26일 유성구 용산동의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로 용역 노동자들 7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제정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재해예방과의 2023년 예산을 보면 중대 재해 예방 관리 9,343,040원, 안전한 일터 조성 92,182,860원, 민간사업 재해 예방관리 71,316,000원 등이 지출되고 있다.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비는 10명,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산업현장에 대한 중대 재해예방, 산업안전 예방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활동을 높여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동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실시, 휴게 시설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대전지역 사업장(21년 기준 164,095개)에 대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이 많다.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산재 위험이 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산업현장이 다변화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동노동자,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대전시의 공공 발주 사업에서부터 모범사업주로서의 적극적인 노동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시의 직접적인 행정력 발휘가 가능하며, 대전시장이 법적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 점검강화도 중요하지만, 입찰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규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가 모범사업주

로서 해야 할 역할을 높이면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의 조직혁신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4년 현재 노동안전 지킴이단은 31개 시군에 노동 안전지킴이 104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노동안전 지킴이단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동 안전교육 지원 확대와 노동안전 컨설팅 지원, 노동안전 모범메뉴얼 제작/배포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준수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현재 산재예방관련 사업을 시민안전실 재해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노동관련 업무와 관련한 부서 재편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노동국에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 정책과, 노동안전과로 편제되어 있다. 대전광역시도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부서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행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우선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 사업 수행의 인적 자원 파악과 확보가 필요하다. 안전보건 관련한 전문인력들은 자격과 면허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며, 관례적 안전보건업무만 수행하다 보니, 변화된 환경에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상이 필요하다. ‘노동안전활동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상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안전담당자가 있지만, 매뉴얼마련, 정기적 훈련실시, 안전보건교육의 질 등 업무수행과 역할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작은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작은사업장 안전보건문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유급병가지원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작업복세탁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

전의 경우 이동노동자쉼터가 유성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업복세탁소도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유급병가지원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 취약노동자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할 단위가 필요하다.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가 대전에도 있지만, 충남, 세종, 충북 일부 지역 까지 지원 지역이 너무 넓어, 대전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취약노동자,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센터,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등 대전시의 노동안전보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3.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지원이 필요하다.

□ 노동안전보건문제는 사업주의 의지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소규모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보건담당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많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교육이 필요하다.

취약노동자들의 경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조직이 없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지 않고, 소규모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조합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기에, 대전지역 취약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공제회 활동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도내 취약 노동자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제회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조직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소규모사업장, 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No.				
-----	--	--	--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산업안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결과의 결과는 참여자 전체의 집단적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별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일절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 2024년 9~10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 연구 수행: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 (042-345-2573)



기본 사항

1. 귀하와 관련된 기본 인적 사항입니다.
- | | | | | |
|----|--------------------------|------|-----------|--------------------------------|
|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 직장(주거) 위치 | 대전광역시 () 구 |
| 나이 | () 세 | | 직업 | () |
2. 현재 귀하의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 ① 5인 미만 ② 5인 이상 ~ 20인 미만 ③ 20인 이상 ~ 50인 미만 ④ 50인 이상
3.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무기계약직 ④ 계약직 ⑤ 시간제 ⑥ 특수고용 ⑦ 기타

노동안전

4. 귀하의 직장에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가 있나요?
- ① 예 (4-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5번 문항으로 이동) ③ 모름 (5번 문항으로 이동)
- 4-1. **(안전보건 담당자 있음)** 귀하의 직장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나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5. 귀하의 직장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나요?
-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6. 귀하가 직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안전 문제는 무엇입니까?
- 근골격계 질병 발생 끼임, 미끄러짐 사고 업무관련 스트레스 화재 안전 화학약품 사고
-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 노동자 부주의
① | 안전시설 미비
② | 사용자 측 무관심
③ | 과도한 작업량
④ | 안전관리자 부족
⑤ |
| 안전매뉴얼 미흡
⑥ | 노사 모두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⑦ | 기타 ()
⑧ | | |

8. 노동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 책임자 징계 등 처벌 강화
① | 안전시설 확충
② | 철저한 안전교육
③ | 안전규정/지침 강화
④ | 위험 업무 인력 총원
⑤ |
|---------------------|--------------|---------------|-----------------|------------------|

9.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 | | | | | |
|----------------------------|---------------|-----------------------|--------------------------|-----------------|
|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① | 노동안전 컨설팅
② | 노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③ | 노동안전 모범매뉴얼
제작/배포
④ | 노동안전 교육 지원
⑤ |
|----------------------------|---------------|-----------------------|--------------------------|-----------------|

10. 귀하의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나요?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그렇지 않다
② | 보통
③ | 그렇다
④ | 매우 그렇다
⑤ |
|----------------|-------------|---------|----------|-------------|

11. 귀하의 직장에서는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그렇지 않다
② | 보통
③ | 그렇다
④ | 매우 그렇다
⑤ |
|----------------|-------------|---------|----------|-------------|

12. 귀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별 필요 없는 교육으로 작업시간만 까먹는다.
- ② 항상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안전교육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 ③ 안전교육은 모여서 사진만 찍고 바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 ④ 안전교육은 필요하지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식상하다.
- ⑤ 안전교육은 백번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 받아야 하고 일상적으로 안전은 강조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13. 귀하의 직장에는 휴게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2-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13번 문항으로 이동)

13-1. **【휴게실 있음】** 귀하는 휴게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일 2회 이상 ② 일 1회 ③ 주 1~2회 ④ 월 1~2회 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3-2. **【휴게실 있음】** 휴게실이 있음에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 위치가 멀다
① |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창고 등)
② |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③ | 너무 낙후된 시설
④ | 회사(관리자 등)의
눈치가 보인다
⑤ |
|-------------|----------------------------|------------------------|----------------|----------------------------|

14. 노동안전(산업안전)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링단 기본교육_A조



모니터링 기본교육_B조



모니터링단 중간교육



모니터링단 중간교육

